朝鮮日報 夕刊
十六日(金)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振替京城二八○○番 電話光化門二一八八 本局二二七八

和平解決不成時는 實力으로 要求貫徹

各國이 伊國移民門戶를 閉鎖한 結果 條約上權利로 對에 移民增加는 當然

伊代表强硬意見表明

[巴里十五日發聯合] 英、伊佛三國代表는 十六日午前十時半부터 國外務省에 會合하야 伊에兩國間의 紛爭에 對하야 全般的討議를 交하기로되엿는데 會議前途에 關하여는 依然樂觀을 不許하고 英、伊兩國代表의 主張은 完全正面衝突될 實情에 處하여잇다 誰聞하면 伊太利代表아로이지男은 十五日午前라발外相과의 會見에잇서 伊太利政府의 强硬決意를 表明하야 左와 如히 力說한것이라고 觀測되다

一、各國은 伊太利에對하야 移民의 門戶를 閉鎖하게되 結果伊太利는 條約의 明確한 權益을 基礎로 에디오피아移民을 增加하는것은 當然할일이다

伊太利政府의 經濟的權益에 關하여는 英國政府는 充分考慮를 加하것다

一、政治上에디오피아 政府의 主權을 制限하는것은 同政府가 聯盟國인關係上到底히 容認할수업다

一、紛爭處理에 當하여는 어데까지 聯盟의 規約을 尊重하야 伊太利政府가 自國의 主張을 實力에 訴할境遇에는 英國政府는 人種問題도 考慮하야 制裁規定의 援用을 訣明하게될는지도 알수잇다

[電通巴里十五日發] 英、佛、伊三國會議에 出席한 아로이지伊代表는 十五日午前九時三十五分巴里에 到着 午前十一時外務省에 라발首相을 訪하고 三國會議에앞서 豫備會談을 開始하엿나 (豫備會談은 아로이지氏)

佛伊豫備會談後 콤뮤니케發表

[電通巴里十五日發] 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 開催된 라발首相과 아로이지伊代表間의 佛伊豫備會談은 途中 佛國外務部門委員레비에氏도 參加하야 會談一時半後 午後零時三十分散會하엿다 兩國會談에 際하야 라발佛首相은 昨十四日의 이든英無任所相과의 會談에서 傳達된 英國側의意向을 伊太利側에 報告하고 伊太利側의 主張도 聽取하엿다 그리고 今日의 佛伊會談內容은 라발首相이 再次 이든無任所相과의 會談時 此를 傳達할터인데 今日의會談後 左의 콤뮤니케가發表되엿다 一九○六年 三國協定調印國代表는明十六日最後의會合을 行하기로되엿다

伊國在營兵 百萬到達 豫備兵도召集

[電通羅馬十六日發] 伊에紛爭에 關한 三國會議가 열니는 此際 伊太利政府는 다시 豫備兵에 對하야 去十日招集狀을 發하얏다 이로因하야 九月二十三日까지에 招集에 應할 豫備兵은 十五萬에 達하고 在營兵總員은 近日百萬에 達할豫想이다

> 三國會商도 前途樂觀不許

伊軍의 에國攻略時 重大反響을 指摘

에디오피아之友會國際委員會 聯盟事務局에 覺書提出

[주네브十五日發聯合] 에디오피아之友會 國際委員會는 十五日聯盟事務局에 覺書를 提出하야 伊太利軍이 에디오피아 帝國을 攻略할 境遇 全世界 數億의 黑人種에 重大反響을 及할것을 强調하야 平和的解決에 必要를力說하엿다 同覺書의 要旨는 左와 如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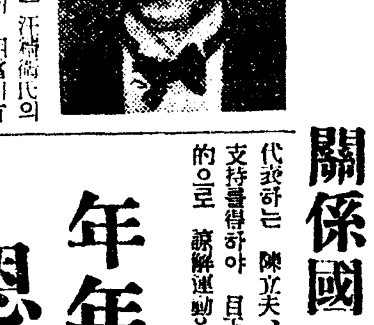
에디오피아帝國은 現在獨立을 維持하고잇는 唯一의 黑人帝國이다 全世界의 黑人種은 에디오피아 帝國에 最大의 期待를 갓고 無限한 同情을 感하고잇다 萬一에디오피아帝國이 强國에게 倂呑될境遇에는 黑人種間에 多大한衝動을 與할것이다 理事會는今回의 紛爭處理에 當하야 이事實을充分考慮하지 안흐면 안될것이라고 에디오피아 政府는 聯盟國이며 同國의 獨立保全은 國際條約이 明確히 保障하는바이다 理事會는 和平解決의 見地에서 中立國 委員으로써 國境調査委員會를 設置하야現地調査를 行하기 바란다

「에」國의 讓步로써 三國會商打開될듯

[巴里十五日發聯合] 三國會商은 英、伊兩國代表의 見解가 對立되여 前途多難이 豫想되는데 라발首相이 從來 英、伊兩國代表와 에디오피아公使와 會見하고 大體의 基礎工作을 進行한 結果 和協案達成의 端緖를 發見한모양인바 英國代表는 十五日夜 左의 意向을 漏하엿다 뭇솔리니首相과 에디오피아皇帝와의 間에 意見相違는 兩當事國間의 交涉으로 何等妥協이 成立될것이다 紛爭의 平和的解決은 依然 希望이업는것은안이다 에디오피아政府는 뭇솔리니 首相에對하야 不少讓步에 應할것이라고 確信한다

英伊兩代表突然會談

[電通巴里十五日發] 伊太利代表아로이지男의 英國代表訪問은 突然한것으로 會談은英國大使館에서 午後七時半부터 約三十分에 亘하야 行하엿는데 그 內容은 不明하나 一般으로 이로 因하야 英伊間의 疎隔이 緩和되여 三國會議의 前途는 好望化될것이라고 觀察되다



外交部長後任에 顧維鈞氏內定? 關係國에 潛行運動中

[南京十六日發聯合] 汪精衛氏의 外交部長兼任辭職說이 相當히有力하게 行하고잇는데 그後任은 現駐佛公使顧維鈞氏로 內定한듯 中政側有力方面에서 傳言되다 同氏는 宋子文、孔祥熙및 黨部를 代表하는 陳立夫、陳果夫氏等의 支持를得하야 目下關係國에潛行的으로 諒解運動을 試하고잇다

陸軍武官見解

[上海十六日發聯合] (宮崎氏談) 顧維鈞氏의 外交部長說에 關하야 陸軍武官室에서는 十五日夜 左와 如한 見解를 表明하엿다 外交部長候補에 顧維鈞氏의 일홈이 나오는데 外交部長의 椅子를 希望하는말은 드럿스나 內定되엿다는말은 아직 듯지못하엿다 日本은 外交部長이든가 行政院長이든가 人物에 甲乙를 論하는것이안이라 中國의政策如何를 問題로함으로 人物이 바귀드라도 國民政府의 政策이 變치안는限 日本側의態度에 變更이업다 오직 信하는方向으로 進할뿐이다

總督府新豫算

新規要求總額 九千九百萬圓

本格的査定遂開始

總督府各局의 明年度新規要求는 全部提出되여 昨日로써 財務局의 事業內容精査도 完了되엿슴으로 今井田政務總監의 歸任을 마지하야 十六日午後부터 政務總監室에서 本格的査定을 開始하엿다 各局의 新規要求總額은 九千九百萬圓에 達하는바 그內譯은 左와 如하다 (單位千圓)

總督官房	三、三○○
內務局	三○、八○○
財務局	一、六○○
殖産局	二、五○○
農林局	九、三○○
法務局	二、四○○
學務局	四、九○○
專賣局	五、○○○
鐵道局	三二、二○○
遞信局	七、六○○
其他	六、○○○
合計	九九、四○○

今井田總監 渡東歸任談

滿洲移民問題折衝을 爲하야 渡東中이엿든 今井田政務總監은 途中釜山에 寄港中의 宇垣總督에 折衝經過를 報告하고 十六日 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歸任하얏는데 談話後 左와如히 말하엿다 移民會社 新設問題는 中央關係當局도 大體로 諒解하여주고 또 資金關係의 豫想도 섯슴으로 드듸여 具體的 實行案을 考究하기까지에 니르럿다 따라서 明年度五、六十萬圓의 補助豫算을 計上할터이로 會社는 資本金 三千萬圓程度로하려고 생각하고잇다 總督府의 計劃案은 十五個年間에 自作農移民 十萬戶 五十萬人 自由移民 六萬戶 三十萬人計 八十萬人을 滿洲에 보낼것인바 實行細目에서 中央方面에도 異見이잇고 또 多少 折衝研究할 餘地는 남겨잇스나 國策的 見地로서 하는 朝鮮의 移民事業 實行根本方針은 同意케되엿다 오즉總督府의計劃案은 社會政策的立場에서 移民本位로 編制한所謂北上計劃으로 此等實行에 移함에는 財政上의 性質로서도 考究必要도잇다 即理事案에對하야 實行上의 再檢討를 하여야할 일이다 어떠튼 朝鮮의 移民事業이 實行의 可能性잇는은 朝鮮特別會計의 國防費分擔은 一般會計와의 調整問題에 對하야는 朝鮮으로서는 財政上 非常時인만큼 無理를 말하지 안코 可能한限의 讓步를 하야 負擔을 承諾하는 同時에 中央方面에서는 滿洲事變으로 一般會計가 相當히 큰 負擔을 하고잇슴에 不拘하고 朝鮮은 한푼도 안내고 反面에 相當한 利益을 蒙하고잇슴으로 幾分政府의 財政을 援助하여야 할必要가잇다는 意見도잇다 그리고 財政의 許하는限 公債減額은 減債基金의增額等에 依하야 一般會計와의 調整을 行하려고 생각하고잇다

鮮滿開拓會社의 設立 明春組織에 着手

東拓은新會社參加、東亞勸業은未定

明年부터 實施할 總督府의大移民計劃의 實行機關으로 資本金 三千萬圓의 鮮滿開拓會社의 設立을 明春에는 會社組織에 着手할터이라는데 至今까지의 總督府移民事業代行機關인 東拓은新會社에 參加하나 東亞勸業會社의參加與否는 아즉未定이고 東亞勸業의 處置問題는매우困難하게되야 今後會社當局又는滿鐵과도 充分히 協議한後가아니면 解決이困難하다고한다 그리고 新移民會社에對하야總督府의 十五個年間의 國庫補助를하야 約五分配當의 保證을하게되는바 計劃移民五十萬名外에 三十萬의 自由民의 斡旋에 對하야는 結局農耕資金의 貸付程度에不過할터이라한다

年年히 累增되는 恩給負擔의 重壓

十二年度엔 總額 一千萬圓到達 總督府 財源發見에 苦心

恩給金을 朝鮮總督府特別會計가 分擔한以來 恩給局의 調査進行에 伴하야 負擔金은 累增의 一途를 過程하야 十年度에는 昨年度보담 百二十萬圓을 增額하야 七百萬圓이되엿는데 貧弱한 半島財政에 不少한 重壓으로 出現되엿다 이때문에 財務局은 明十一年度에도 百萬圓增額負擔을 豫想하고 財源을 留保하고잇는데 恩給局의 調査가 進捗되지 안키때문에 恩給局의 通知額은 三十五萬圓에머무러 六十五萬圓의 餘裕를 生케하야 明年度財源에 約 年度豫算編成上 一大樂觀케하얏다 그러나 恩給局의 調査가 進行될時에는 滯日하엿든 關係가 一時에 到達하야 十二年度에는 總額一千萬圓에 達할것이라고 豫想하고 只今에 財源對策을 充分講究치 안흐면 境遇에는 半島財政에 重壓을 加하야 豫算編成上 曠大한 支障이될憂慮가 잇다하야 벌서부터 財源의 發見에 苦心하고잇다 따라 明年度에도 今後의 恩給金 負擔增額에 備하야 編成上 適當한 厚配를 加하야 萬全을期할 模樣이다

八面錄

◇「現在 國政이 瀕危하고 內憂外患이 차례로 늘하간다」。

◇이때에 「모든 重責은 專혀貴下의 秀才에 기다릴뿐이나」라고。

◇中央會議의 決議로 汪精衛氏에게 正式으로 慰留電報를 發送햇다。

◇詞句 簡單하나 中國의 實情을 그렷다 할것이다、愛國의 士! 汪氏 또한 울며 留任하지 아니할가。

◇典當鋪利子가 너무 빗싸다고 當局이 서둘러서 나리게하나 든가。

◇이제야 低金利時代라는것을 깨다른셈인가。

米、富의 再分配案 壓倒的多數로 上院通過

[電通華盛頓十五日發] 米國上院은 十五日 富의 再分配를 目的한 富豪課稅法案을 左의 修正을 加하야 五十七票對二十二票로써 可決、同案은兩院協議會에 回附되엿다

一、將來無稅의 聯邦證券의 發行을 禁함

二、銀法에 依한 銀投機取引利益五割據定의 開除

人事·集會

▲金應杯氏(朝鮮總督府判事) 大邱로부터 京城覆審法院으로 轉勤

號外發行

北寧線列車顚覆事件으로 號外를 發行햇읍니다

中國保衛隊發砲 日本國旗揭揚한船에

灤河下航中非戰區內에서 問題의 重大化는未免

[電通天津十五日發] 灤州事件이 아직解決을 告하지못한 此際 又復 灤州北方에서 日本國旗를揭揚한 船에 發砲事件이 發生되엿다 去十三日午前十時五十分頃 熱河中根領事、特務機關千葉大尉、熱河公署山岸土木課長等의 一行二十四名은 二隻의배에 分乘하고 灤州를下航中 非戰區內遷安北方에서 保衛隊로부터 發砲하얏는데 多幸히 彈丸은 命中치안햇스나 日本人이라고 더욱 白晝에 日章旗를 揭揚한 배를 襲擊하얏슴으로 同船은 卽時 停船하고 一同은 上陸 保衛隊長을 逮捕하야 遷安縣東軍憲兵에 引渡하엿다 이事件에 對하야 天津駐屯軍에나總領事館에나 何等 報告는업스나 問題는 重大化하리라고觀測되다

本紙夕刊八面

滿洲國治外法權撤廢와 在滿朝鮮人의 關係

(二) 金麟伊

三、治外法權의 具體的內容

治外法權의 內容은 上述한바와가티 多數의 條約慣行에 基한 또永年에 亘하야 累積되것임으로 此를 簡單히 說明하기는 困難한데 抽象的으로 말하면 一八四三年以來 中國이 各國과 締結한 各種의 條約과 慣行에 依하야 外國人과 其財産에 對하야 定한 特典 免除及制限을 綜合한것이라고 定義할수가잇다 故로 이意味에잇서 治外法權의 內容은 狹義의 治外法權 即 領事裁判權뿐아니라 行政方面에도 미처 警察課稅에 關한 問題도 全部 包含되는것으로 換言하면 治外法權을 享有하는 外國人은 民事刑事에 關하야 原告인 境遇外에는 中國의 裁判權에 服從할 必要가 업고 自國의 裁判權에 服從하며 또一般으로 中國의 警察權의 干涉을 밧지안흐며 納稅의 義務도 업다는것이다 그러나 이와가튼 治外法權이 存在하는 反面에 잇서 治外法權國人은 開港場(開市場)에서만 居住營業할수잇다는 重大한 制限을 밧고잇는것을 이저서는 안된다 治外法權의 抽象的 內容은 以上 言及한바와가거니와 다시 具體的內容에 關하여 그 關係諸條約을 引用하면서 說明하면 다음과 갓다

四、領事裁判權의 內容

即領事裁判權 行政權 治外法權國人이 有하는 各種의 自由 治外法權에 對한制限 治外法權과 滿鐵附屬地와의 關係等을 各其說明하여보면 治外法權의 內容이 如何한것인가를 알수잇는 同時에 如斯한 特殊的權益이 撤廢됨에 따라 政治的經濟的 弱者의 地位에 잇는 在滿朝鮮人의 環境에 如何히 重大한 變革을 齎來할것인지를 推知할수잇다 그럼으로 滿洲國發展의 將來가 如何히 展開될는지 未知이나 現下와如히 在滿朝鮮人에 關하야 重大한 多數懸案이 積滯되어잇는때에잇서 治外法權의 撤廢에依한 政治的關係와 經濟的生活에 波及할 影響과 變化는 莫大한바가 잇슬것이다 條約上 治外法權에 關하야 明示되것은 被告主義를 認定한 裁判管轄權이다 即 中國은 外國과의 間에 條約에依하야 治外法權國人間의 訴訟事件 及 治外法權國人의 犯罪事件과 中國人을 原告로하고 此種條約國人을 被告로하는 訴訟事件은 모도 中國의 裁判管轄의 밧게잇는것을 承認한것이다 이것이 即領事裁判權으로 治外法權의 本來의 內容을 構成하는것임으로 領事裁判權과 治外法權과는 往往 同意義에 使用한다 그러나 勿論 現在의 治外法權은 後述하는바와 가티 領事裁判權보다 매우廣汎한 意義를 가진것은 勿論이다 日中間의 條約에 依한 領事裁判權의 發生은 明治二十九年의 日中通商航海條約으로 詳細하게 規定되어 잇는것이다 領事裁判權中에는 司法警察權을 包含하는것은 勿論인데 이司法警察權은 領事館勤務의 外務省警官에依하야 實行되고 잇서 其指揮系統은 領事官을 通하야 外務大臣에게 關하야 잇는데 이境遇에는 外相은檢事總長과가튼 地位에 잇게되는셈이다

在滿中 日本領事館은 第一審裁判所로서 모든 民事訴訟事件 破産事件 非訟事件 重罪가아닌犯罪의 刑事訴訟事件等에對하야 單獨으로 審理判決을 할權限을 가지고 잇서 此第一審裁判은 國內에서에 相當하는 第一審裁判과 가튼 審級及 手續에 依하야 上訴할수잇게 되어 잇다 近來 領事 裁判事務의 激增과 懸案件의 複雜化에따라 領事館에 司法領事를 配置하야 司法事務를 專掌식히게 되엇다 領事裁判에서 適用되는 法規는 原則으로 日本內地에 實施되는 모든 民事 商事와 刑事의 法規인데 性質上 領事裁判에서 實施하기 困難한規定에 對하야는 勅令又는 省令으로 例外的規定을 制定할수가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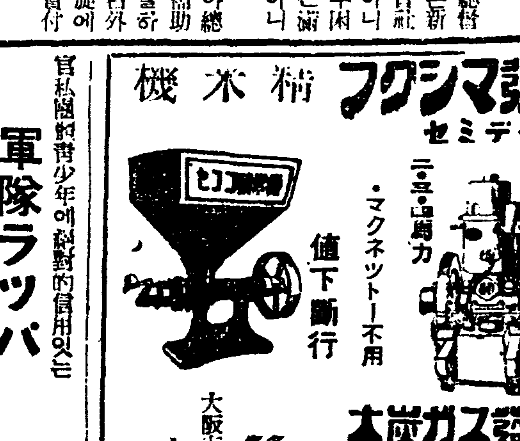
五、行政權行使의 方法及範圍

中國에잇서서는 治外法權國人은 一般으로 中國의 行政權에 不服하는 特權을 有하야 彼等에對하여는 各本國의 行政權이 行使되고잇다 이것을 沿革的으로 槪說하면 一八五八年의 佛中 天津條約 第四十條에 『本條約에 明定되것을 除한外 모든義務는 佛國領事或은 領事代理와 佛國臣民에 課할수가업다』고 規定하엿스며 또 一八六五年의 白中北京條約第十四條에는 『清帝國內에잇는 白耳義人에關하는 모든財産은 清國人에依하야 不可侵으로尊敬되며 또 恒常尊重될것이다』라고 規定되야잇서 此等規定의內容은 最惠國條款에 依하야 日本人其他 모든 治外法權國民도 一律로 均霑되다 그런데 이러한規定은 解釋上及慣行上 治外法權國人은 其身體及財産에 關하야 모든 中國의法令과 中國官憲의 命令에 不服하게되야잇서 따라서 모든 中國의 行政權에 不服하는特權이 發生하게되것이다 그런데 中國에잇서 列强의 在留自國民에對한 行政權行使의 方法과 範圍는 各國이 다르나 大概自國領事官이 行使한다 特히中國과滿洲에잇서 日本의 行政權은 地理的關係로 在留者가 多數일뿐아니라 往來도頻繁함으로 이에對한 取締及保護의 必要上 行政權의 行使程度는 他國에比하야 매우廣汎하다 其內容을 區分하여보면 日本臣民의 救助及送還事務 船舶及船員關係 戶籍及遺産事務 證明及認證事務 在留登錄事務 保護事務 學事行政 兵事關係 居留地及居留民關係事務 營業風俗 交通衛生 出版集會及結社等에 關한 取締等相當히 廣汎하야 行政官의 職務를가지고잇다 勿論以上列擧한行政權 特히 警察行政의 內容은 治外法權에依한 屬人的行政權인것을 아러야한다 (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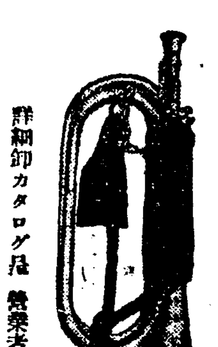
大阪箸名問屋案內 (鮮滿地方特約店募集)
各種箸製造 竹箸、黑檀箸、塗箸、竹箸、菓子箸、各種箸箱 件ホーク、ラクト細工 セル加工、齒ブラシ パイプ、鐵木ステッキ
第一工場 大阪天王寺區上之宮町二 第二工場 大阪府中河內郡龍華町植松
大阪市天王寺區上之宮町七一
高木箸製造所 電話天王寺三七五番 振替大阪四八六八番

百般의進物用品 (業者에限해呈)
贈答用品、記念用品 宣傳用品、景品用品 賞品用品、廣告用品 別製品印人調製
大阪市西區新町通二丁目 橘高山陽堂 電話新町一九五七番 振替大阪五七七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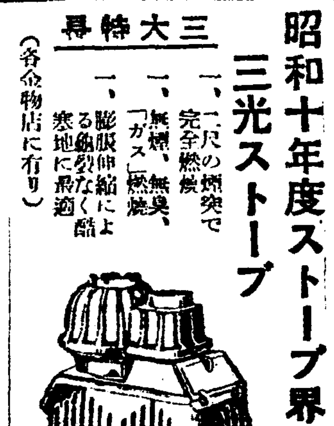
機動發フクシマ 精米機 セミディゼル
農林省認定工場製造 小型發動機ー故障絶無 廉價 ・マクネット不用 三三三馬力 値下斷行
機生發ス炭木 最新式小型輕量 2.4.5.6.8.10 15馬力型 木炭一貫で石油二升の出力あり
各種發動機 各種農具 在庫豐富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支店 大連市山縣通一五六



軍隊ラッパ 九○式三號卷ラッパ
楽器卸カタログ呈 ナカキオルガン、シレネギター WNI樂器 ハーモニカ 營業者에限함 製造卸
第一소리잘나는忠勇印 製產高全日本의八割을占함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 中井喇叭製造所 電話五一二三番



昭和十年度ストーブ界の王者! 三光ストーブ
三大特長 一、一尺の煙突で完全燃燒 一、無煙、無臭、「ガス」燃燒 一、膨脹伸縮による龜裂なく酷寒地に最適 (各金物店に有り)
大阪 田中新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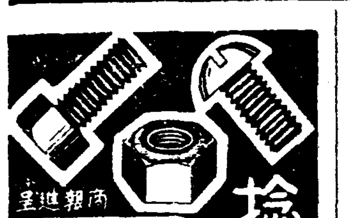


作業服 學生服 青訓服 羅紗服 羊印、フォード印 ◎各種卸商 (來店歡迎) 型錄送呈
伊藤清商店 大阪市北區曾根町四一

萬力作業服 東界で一番良い
生地見本及カタログ送呈 大阪市梅田新道 太平商會

雜貨現金問屋 ハンカチフ・ガーゼ製品 エプロン・カッポ服小供服 ソース靴下各種
相場表呈ス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堀野玄二商店 電話船場四一七九 振替大阪五一七二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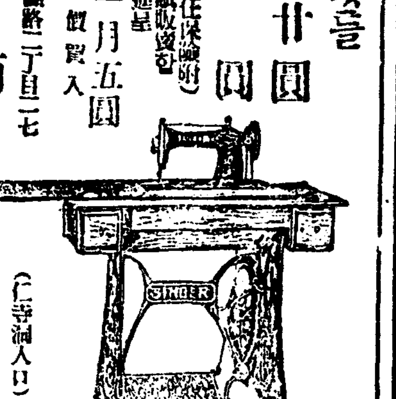
螺子・鋲・工具類 諸機械及自動車用品一式 商報進呈
大阪市西區新町通四丁目十三 福住商店 電話新町四六五六



興宇標打綿機元祖 新特許
京城生産品評會優秀賞牌受領 朝鮮博覽會優秀賞牌受領
興宇標新型打綿機 興宇標新型撚絲機
本特約店 他製品의 高評好評 (カタログ進呈)
興宇標打綿機製造所 京城府昌信洞一三五番地 電話(光)二一六六番 主 李載宜

神秘丹 胃腸病 大王藥
藥價 1.00 1.50 3.00 5.00 10.00
製造本舖 大邱 景春堂藥房 京城府義州通一ノ三三
一手販賣 三中洋行

싱거ー中古재봉틀
十五號足踏型 百廿圓 十五號手廻型 百圓 (五個年絶對責任保證附)
市內마음대로試験해서 月賦販賣함 各種재봉틀目錄進呈
재봉틀賃貸 一月五圓 ◎쓰던재봉틀高價買入
京城鍾路二丁目二七 楠재봉틀店 (仁寺洞入口) 電話光三九六番



高麗人蔘 開城白蔘種子 (商報進呈)
朝鮮開城府北本町 元祖人蔘商會 電話三一二番 振替京八七二七番

物理醫療師 生活線第一有望
最新最高 物理醫學 責任養成
院長은 我國綜合電醫의 創始者로서 東京電醫學校學長이고、斯界電醫에 有名한 巨頭이다
永久醫師同樣의資格을獲得하야 衆人의尊敬과 生活의 安定을得할者는 必히 今期에入學하라 不遠總督府令發布其後에난 自由開業은 不許할것이다 本院의 資格證書로서 自由開業이되며 永久安全하고 有資格인 養成所는 本院以外에 업다
◎來院하면 一目明瞭 希望者난 案內書를 請求하라 (急送)
認可京城高等電醫講習院 附東京電醫學校實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二四四

金ペン及萬年筆의仕入은
確實한 製造家의 攬擇이 肝要、絶對品質의 優秀 價格의 低廉을 자랑하는 名古屋唯一의 製造問屋
名古屋市南區高藏 森晉製作所
カタログ呈

朝鮮第一 全鮮最高 映畫殿堂 團成社
(七)槍旗、太平洋攻防戰 (六)全發聲春香傳 (五)빛나는正義 (四)메리위도우나의四이나 (三)진엔노아이、꾸피도의시절 (二)뉴욕리오、해장엄오십나 (一)男子의世界、自殺俱樂部(秋期映畫)
스타ー檢閱、南南의戀歌(次次週) 思春期 (大週封切) 金發聲 バンサ(種族)
名女優리안하비의渡來記念映畫 오페레타音樂劇絶好의納涼映畫 ◆東京大阪朝日新聞社提供 製作監督…醫學博士小倉清太郎 原案編輯…鈴木重吉
金色의꿈 우리리하비 우리리 풀스트 主演
未完成交響樂의監督者인우리리풀스트氏리메리主演 古典의나의꽃한갓花와夢의古典의나의꽃갓花와夢想과香樂그情 이세기七紀의仇나가잇다 우나의情婦 獨逸우파特作日本版
最高權威R.A.C하잇푸리데리 再生의威力! 斷然壓倒的評判! 東和商事映畫部提供 케자、보롤와리監督
每日三回午前十一時半午後二時半七時半 八月十七日부터四日間

八月十六日より特別公開 附下 十錢均一
大都巢鴨超特作時代映畫 原作腮色小狸一平監督大伴龍三 鵜の旅 新星松山宗三郎 主演 琴絲路、三城輝子 共演 久松玉城、伊丹慶治、淸水明、山吹德二郎、大岡怪童、横山文彦
ユニバサル超特作發聲日本版 カールレムレエ特別提供 エッチジーウエルス原作の怪奇小說より クロードレーンーズ氏主演 透明人間 グロリアスチユアート ウイリアムハリガン 共演
怪物を超越した怪人!恐の見えぬ魔人!現代化學が生んだ不可思議な透明人間列車の衝突!殺人復讐彼こそは惡の華血の男であり姿の見えない人間だ!手に汗握る恐ろしさと面白さの連續
大都映畫超特作現代映畫 原作腮色ー松波三平監督ー太田辰三 串差おでんの名コンビ佐久間紗子浮三郎の久々の主演映畫 若樣人生勉强 高村榮一、甲賀計一 藤間林太郎、大河百代 共演
櫻井町 本局(会) 大正館

滿中直通北寧線에 異變

鐵橋上서 列車被襲 六十同胞總受禍

乘客으로 扮裝便乘한 土兵에게 百餘旅客大槪死傷

【山海關十六日發同盟合成電通】 십오일 오후열한시사십분에 산해관(山海關)을 떠나 북평(北平)으로가는 주롱열차가 석하(石河)철교에당도엿슬적음에 맨압(기관차의바로 다음)삼등차에탓든 토병륙칠명이 틈엇권총을 빼아들고기관수를 협박하야 렬차의 속력을 늣춘후 승객들에게서 닥치는대로 금품을략탈하엿다 이서슬에 조선사람한명과 중국인두명은독사하엿고이 십삼명이 주상 그외에 승객백여명이 거의전부경상이라도 다상을당하얏다 그리한후 토병들은 렬차로부터 뛰어내려 고량밧속으로 다러낫는데 동렬차는 진황도(秦皇島)에 도작하여서 사상자를 수용하엿는데 삼등차를 떼어노코 약두시간후지체한다음 천진(天津)에 향하엿다 급보를받고 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주둔부대〇〇명이 응원출동하엿다 토병은 승객처럼 꾸미고 산해관에서 차를탄것인데 이렬차에는조선동포 륙십명이 귀중품을가지고 타든던로이를목표로 계획적으로한것가튼바북녕선(北寧線)에서 이가튼사고가 발생되얏은이때까지 업든일로시절이 시정인만큼주목중대시되다 (이상호외재록)

國境惠山對岸에서 衝火拉致等恣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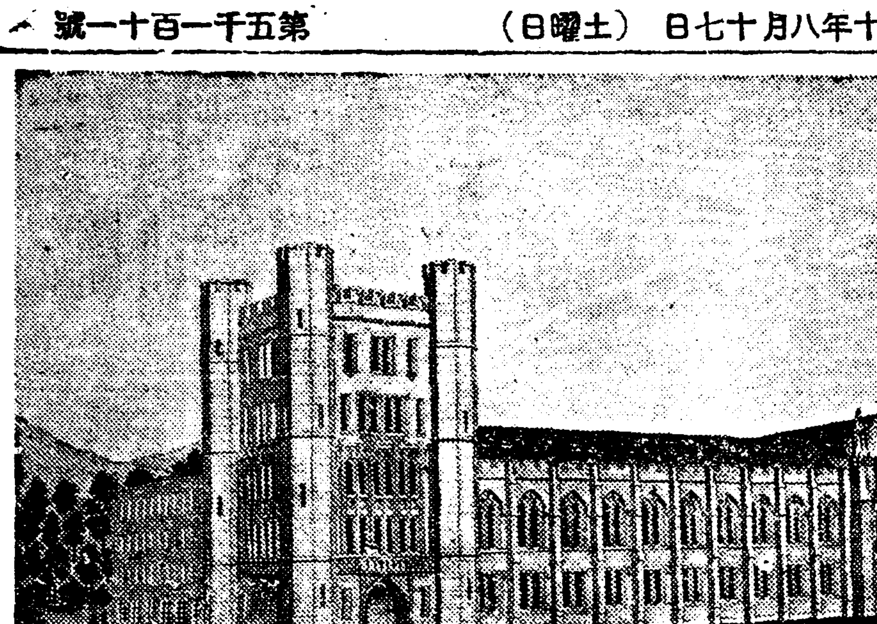
數百住民續續避難

【惠山鎭】 십오일오전여섯시경에 함남혜산서천수(惠山西泉水)주재소대안 장백현 십구도구신풍동(長白縣十九道溝新豊洞)에 무장단이십명이 습래하야조선인 세호 만주인한호에 방화하고 식량기타를 강탈하며 부락민에게 발포하는동시에 조선인리대의(林大義)리주련(李周連)만주인 리홍진(李紅振)의 세명을 랍거하여가지고 넘지로 도망하엿다 이때문에 부락민은십오일아침부터 피난을 시작하야조선내 천수리에 삼십명천수주재소 대안 이십도구에 일백삼십명이 피난을 하엿다 이급보를접한 만주국 경찰대에 서는곳대도벌대를 편성하여 가지고출동하엿는데 조선측에서도 국경제일선에서는 연안을 엄중이경계하는중이라한다

長山土兵擊退 討伐隊三名死傷

松花江上流地方서

【哈爾賓十四日發聯合】 지난 십이일 오후세시삼십분경에 부금(富錦)에 주둔한 천정(淺井)대위이하 〇〇명은 동지서방이십만주리되는 송화강(松花江)상류백소도(白小島)에서 장산(長山)토병 약사십명과 교전하야 그들은 북방으로 격퇴하얏는데토벌대의 손해는 전사두명과 부상한명이엇다



普專記念圖書館立體圖 (記事參照)

光輝의普專卅年 記念圖書館着工

寄附三十萬圓中十七萬圓으로 石造五階의巨厦建築

사회각방의 열(熱)과 성(誠)의 영구한 『씸볼』로서 조선이 어온 지나간 삼십년동안의 다사한 세태와 거름을가치한 우리가 가진력사적 사학(私學)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춘풍추우 삼십년의 파란곡절을 지나서 이제 금년으로써 갈회기픈 삼십주년을 맛게되엿다

이에 이섬사를 더욱뜻깁게기념하기위하야 전조선칠백여명 유지의 발길 삼십만원의기부금으로모집하야 긔념도서관과강당을 세운다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그동안 긔부금의 모집이 지극히순조로 진행하야 드디여 계획의일부를 실행에 옴기기로되여 전민족의 충성과지의 선물로 위선칠십만원의예산으로서 긔념도서관의 건조에 착수하엿다 이도서관의 설계는 석조오층거물로서 렬람실 특별렬람실 연구실 서고등을 포함하야 총연편이 팔백칠십삼평에 달하는 광대한 것이다 설계자는 이번에도 전번 그학교본관을설계한 박동진(朴東鎭)씨라고한다

又復再燃되는 京仁複線問題

【仁川】 명년도까지에는 준공될 경인산업도로는 『아스팔트』로경인을 연결시키게되자 불원한장래에 인수(仁水)철도부설까지 구체화하야 잇스나 경인철도복선문제만은 우금 아모러한 구체안을 세워주지안는다하야 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경인복선부설요구에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야 불일간 총독부에제출하리라

는데 격정여하가 강 주목되다한다

隔離식이라니 晦踪한染病客

무서운 장질부사환자가 어데로 도망을 하엿다 부내 청진동(淸進洞)이백륙십일번지 서상학(徐相鶴)은 지난 십사일 부민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엿는데 장질부사의 혐의가 잇서 그병원에서는 혈액을 순화병원으로 보냇든바 십륙일에 진성장질부사로 진단되어 그를 격리시키고저 전긔주소로 차저가는바 그는 십일 아츰에 자긔처와 그의 고향인 리천군 대동면 왕도리(利川郡大同面王道里)로 간다고 하고 떠나갓다고 하므로 소관 종로서위생계에서는 곳전긔주소를 대소독하는동시에 리천경찰서로 그의 도착여부를 조회중이라 한다

宗廟마루밋헤 난데업는拳銃

부외돈암리(敦岩里)사백오십팔번지의 사십구호에사는 리왕직(李王職) 고용인 바마녀(朴勳杖)가 지난십이일오후여섯시경 부내훈정동(薰井洞)종묘(宗廟)안을 소제하다가 독일(獨逸)식 륙련발권총한개가삭크에 담은채 마루틈에 끼어잇는것을 발견하엿다는보고를받은 경긔도경찰부에서는 곳 종로경찰서에 수배하야 권총의 출처를 조사중이라 한다

救急費三百萬圓

全南旱魃과災民多數로 非常救急策立案中

전라남도(全南)일대의 대한발에 대하야서는 이미본보에 루차보도하엿거니와 이제 그피해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건대 함평(咸平)무안(務安)령광(靈光)령암(靈岩) 장성(長城) 곡성(谷城) 광주(光州) 광양(光陽) 라주(羅州) 화순(和順) 해남(海南) 각군은 그절반이 피해를 입엇는바 전도 수전(水田)이십일만 정보중에사만정보는전멸상태에빠젓스며 면화(棉花)는칠할이십일경에대작(代作)을 못하야목포(木浦)중심은전멸상태에이르럿다 이로 인하야 전도의 인심은 매우 흉흉한중인데 도당국에서는 지방비를 림시지출하야 좁쌀등을 가능한범위로 리재민에게 분배하는중인바 도저히 구원해낼 가능성이업서 우선 도로공사등으로 림시 변통중이나 그근본대책을 강구하야 실업 근등(近藤)지사가 상경하야 도로공사비 토목공사비, 사방공사비를 청구하기위하야 관계국과 장과 협의할터인데 구제사업비 약삼백만원을 요구할터이며 또 지방읍중심으로 구제회도 조직할터이라한다

跛行的漸進案이나 質屋取締令改正

非時代的高利로細民울리는 典當利率을全般遞減

세민계급의 가장간편한 금융기관인 전당포는 세민층의 팽창을따라서 더욱 융성해가는 형세에 잇는데 이를 취체하는조선의 현행전옥취체규측 (質屋取締規則)은 일한합병직후에 일본내지의 취체규측에 준하야 제정한것으로서 지금까지도 그동안고다의 시간적변천을 전연무시하고 존속해왓다 따라서 그리용과 중요한 관게가 잇는 리률(利率)만 하드라도 현재의 저금리(低金利)의 현상과는 전혀 배치되기 짝이업는 고금리(高金利)를 그대로 유지하고잇서서 겨우각도경찰부장의 자유재량에 의하야 다소각도마다그사정에의하야 인하를 소극적으로 권고하는정도에 끗처서 실지상으로는 고리대금의 일종에 지나지안엇다 그러데 이번에 정무국에서는 이취체의 표준을 전조선적으로 통일할의향으로서 각방으로 재료를 수집연구중인데 대체로 점진주의를 취할모양으로서 엇지의보호와 취체를 병행시켜서 가장중요한 리률의결정도 인하를 단행하는것이아니라 다소 신축성의 여유를 매들어서 차측인하를 단행할방침이라한다

안해虛榮心에 男便飮毒自殺

부외신당리(新堂里)일백륙십이번지 령천동(靈泉洞)륙십호 윤영근(尹永根)의집 세방에사는 문상현(文上元)(二三)은 십오일 오후열한시경 부내종로 삼정목바래(綿米)려관에서 그의안해 서은순(徐恩順)(假名)(二二)과 그의 동무 지룡성(池龍成)과 본사에대하야 유서 세통을 남기고 『칼모친』을 만히먹고 자살하엿는데 유서에의하면 그난오월경부터 그의안해인 서은순과 부부가되야 전긔장소에서 『스위트홈』을 일우엇스나 서은순은원체, 허영심이 만흔 녀자라 남의집 셋방사리를 불만히 생각하야 항상 가정이 불화하엿다 마층내 무상한 그의 안해가 자긔에대한 태도가 점점 식어감으로보고 결국 돈이 업서뜻대로 되지안는 이세상을 죽엄으로써 청산코저 각오한나머지 약을먹은것인듯하나

梨泰院墳墓로 京城府가頭痛

移葬者가殆無하야서

【京南】 경성건설의 후보지로 나년간 서부의 현안중에잇든 경남일대(京南一帶)가 장차 경성부로 편입하게되여 지역확장과 수도배수긔관(配水機關)증설등의 제반시설은 세상에 만흔주목을 끌고 잇는데 경성부에서는 먼저시외리태원(梨泰院)에잇는 십칠만평의 경성부공동묘지를 주택지로 설정하고 이를 일반에게 불하하고저 사만삼천여 백골이 뭇처잇는 분묘를모다 오는 구월말일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 식히라고 지난 삼월륙일에 유연자(有緣者)들에게다 공문을 발송 하엿다는데 그러나 그공문은 사만여장이나 주소부정으로 반환이되여서 구할오부가 무연묘(無緣墓)로 간주하게되며 부당국자들은 더한층 두통중에 잇다하며 하여간 긔한한날까지는 기달이여보앗다가도 그때까지 통지업는 분묘는 할수업시 경성부에서 마러서 이를 시외망우리(忘憂里)신공동묘지로합장식힐터이라한다

國境警備線에 登場한裝甲船車

各要所에配濟한다고

【新義州】 국경경비의 완성을 긔하기위하야 평북 경찰부에서는 금번 새로이 장갑자동차를 구입하야 적당한 개소에 배치하얏는데 또다시 장갑선(裝甲船)도 배치할계획을 세웟다고한다

消防手의 水中救護演習

無事히終了

각금 생기는 한강 연안의 수재때에 구호작업을 하게되는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에서는 례년에 의하야 지난 칠월 초순부터 동 서원을 동원식혀 수영 배젓기등 예행연습을 식히든중 십오일에 무사히 종료되엇스므로 쇄기 시일장소에서 납양회를 거행하게 되엇다

運動競技欄

拳豪徐廷權의 興行權爭奪劇

聯盟과日俱의對立으로 警視廳調停으로解決

우리의拳鬪 徐廷權君이 世界빤탐級第六位라는 榮譽를짊머지고 東京에 到着하자 本來부터 紛糾中에잇든 徐君을길러내인 日本拳鬪俱樂部와 및日本拳鬪聯盟의 對立感情은 더욱 險化하야이 未闘盟과는 米國서부터 契約이 成立된後임에도 不拘하고 日俱의 恩師라는 渡邊氏는 徐君과 米國에서 벌서 손을 떼이엿것만 徐君이 도라오니 昔日의 스승이요 또는 徐君은 日俱에在籍한選手라하야 日本에서의 徐君 歡迎拳鬪戰에 對한 興行權을 둘너싸고 以來兩者가 對立하야 紛爭이 繼續中이든바 지난十二日 徐君은 苦悶하든나마지 하는수업시 警視廳에 出頭하야 前後顚末을 말하고 調停을 依賴한바잇섯는데 警視廳에서는 聯盟과日俱의關係者를 召喚하야 善後策을 講究한 結果 一切를 徐君의自由意思에 맛기기로되여 十五日聯盟事務所에서 再次契約書에 調印하고 豫定한 三試合의 興行權은 聯盟에一任하기로 決定되엿다

取調中逃走犯人 中途負傷코被捉

【新義州】 지난십삼일오후세시경 신의주 사법계에서 취조를받고 잇든 주소미상 폭행범인 강봉

朝鮮卓球代表 平壤軍京都遠征

【平壤】 京都市中區乾陽常小學校에서 十七、八兩日間에 開催될 全日本卓球大會에 出戰할朝鮮代表 平壤卓球團의金甲淳、金炳實、黃致玉選手는 監督石井平壤女高普敎諭引率로 十四日午後十一時十五分에 平壤驛發 列車로 壯途에 올랏다한다。

甲子園中等野球

新商敗北 愛知商業戰에

【甲子園電話聯合】 第二十一回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三日의 新義州商業(朝鮮代表)對愛知商業(優勝候補)試合은 十六日午前九時三十一分 甲子園球場에서 森田(球)橫濱、高松、田中(墨)四氏審判아래 愛知先攻으로 開始한바 愛商의好投好守에다添加된 健棒으로 三回三點 四回一點을 先取하엿슴에 反하야新義州商業軍도 力戰하엿스나 打擊不振으로 八回初에 愛商의新商의遊失이 始初되여 一擧八點의 大量 得點을 거두고 다시九回에一點을加하야 合計十三安打와 敵失六으로得點十三點을獲得한데 對하야 新義州商業은 愛商投手高橋에게牛耳를잡혀 겨우一安打가잇슬뿐이오 이내得點업시 結局十三對零으로 强豪愛商에게敗하엿다 四戰十一時三十七分

愛知 003 100 081—13
新商 000 000 000—0

松山3 海草0

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三日의松山商業對海草中學戰은 十六日午後零時五分부터 阪神甲子園球場에서 松山商業先攻으로 開始된바 結局三對零으로 松山商業이 勝捷하엿다한다

松山 000000021—3
海草 000000000—0

鐵道局內野球抽籤

第二回鐵道局內野球大會는十七、八兩日龍山鐵道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바 對陣은 다음과가티決定하엿다한다

▲十七日=午前十時入場式、優勝旗返還同十時半試合開始
A、京城對元山 B、城津對釜山 C、大田對平壤
▲十八日 午前九時=A、勝者對B勝者 C、勝者對京城工場 午後四時 優勝戰

仁川水泳俱樂部 部員遠距離水泳

【仁川】 仁川水泳俱樂部員 二十餘名은 會長李□云氏의 指導下에 月尾島에서 水泳講習을 맛추고 지난十四日 午後四時十五分에 小月尾島를出發하야 月尾島를 部員十九名이 一巡하얏는데 時間은 一時五十分이엿스며 그中에는 十四才의 少年도 잇서 一大異彩를띄엿다한다

學生馬術軍入京

全日本學生馬術協會主催로 派遣된 全日本學生馬術軍의 木下、宮下兩監督外選手十名은 十六日午前七時四十五分 京城驛着으로 入京하야 大阪旅館에 投宿한바 十七日은 練習하고 十八日에全朝鮮軍과 對抗試合을 할터이라 한다

夏期卓球講習會

鷄林卓球俱樂部와 스파르타運動俱店後援의 第二回夏期卓球講習會는 來十九日부터 三十日까지 (午後四時부터二時間)李王職雅樂俱樂部 卓球室에서 開催할터이라는데 講習內容은 卓球理論及實施硏究等이며 講師는 金明林君이라는바 會員은二十名定員이요 十八日까지 前記場所에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廿三日大連遠征 朝鮮代表選手

來二十五日大連에서 擧行될 滿中陸上對抗競技大會에 出場할 朝鮮側選手 喜田監督、劉約翰主將以下 一行二十一名은 來二十三日 午後三時에京城驛發 노조미號로 大連에 遠征할터이라한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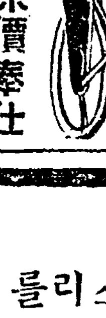
弱한 低氣壓은 四國압바다와 石垣島에잇서 東進中이며 數日오ー츠크海에서 東北地方及日本海로퍼지든 高氣壓의勢力은 도모지衰하지안어 朝鮮도 그圈內에잇다 半島、東岸과日本中部以北은 흐리고 곳곳이 降雨가잇서 大槪氣가조리 滿洲朝鮮及關西方面은

昨日最高 三十二、
昨日最低 二十、
今日正午 二十九、四八五

頭痛에 ノーシン
天才는 賞讚할 畸形이다 頭腦의藥은 일업다 누구에게던 頭痛에만 ノーシン은 要求되고잇다

自轉車材料原價奉仕 信用販賣問屋
諸官廳納品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ノ六大通 日英商店 電話日本橋二七〇二番〇四一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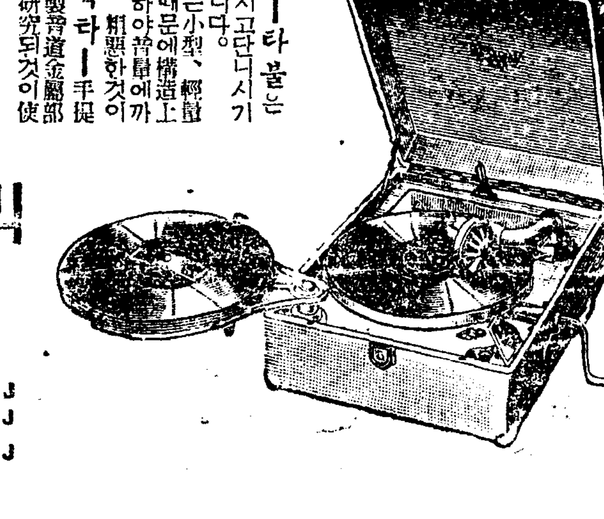
朝報案內
外勤社員 數名招聘
店員數名 SF商會 光化門ビルヂング十五號
恩給 借換歡迎 京城府笠井町一五〇 朴濟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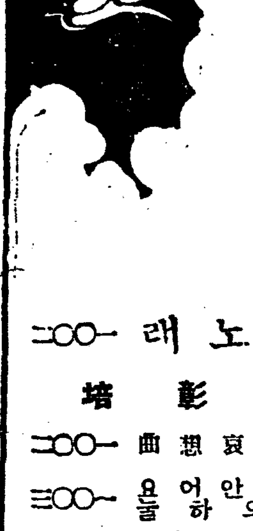
巡廻演奏日程
南鮮地方: 密陽 九月二十、二十一日 大邱 同十九、二十日 / 金海 同四、五日 金泉 同二十一、二十二日 / 馬山 同六、七日 尙州 同二十三、二十四日 / 晋州 同八、九日 安東 同二十五、二十六日 / 統營 同十、十一日 忠州 同二十七、二十八日 / 釜山 同十二、十三日 淸州 同二十九、三十日 / 蔚山 同十四日 鳥致院 / 浦項 同十五、十六日 天安 / 慶州 同十七、十八日 水原
北鮮地方: 元山 十月十九、二十日 / 咸興 同二十一、二十二日 / 興南 同二十三、二十四日 / 北靑 同二十五、二十六日 / 城津 同二十七、二十八日 / 吉州 同二十九、三十日 / 淸津 同三十一日 / 會寧 同二日 / 龍井 同三、四日

오케ー 地方巡廻 大演奏會
管絃樂 째쓰빤드 / 당고빤드 레뷰ー / 하와이안뮤직 / 新舞踊 流行歌 新民謠 寸劇 넌센쓰
오케ー레코ー드專屬藝術家總動員

蔡·姜二大歌手컴비로된 히트盤 再現!!
Columbia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故鄕을차저가나 蔡奎燁 姜弘植
레코ー드番號 四〇六二
컬럼비아레코ー드



小型으로훌융한소리를 내이는빅타ー의手提型
빅타ー포ー타불은 적고가벼워서가지고단니시기에대단히편리합니다。手提型蓄音器는小型、輕量을目的으로하기때문에構造上여러가지無理를하야音量에까지影響을미치는 難點한것이만습니다마는 빅타ー手提型은、獨特한木製音道金屬部分品캐비넷트等硏究되어使用되어잇습니다
그럼으로 빅타ー手提型은어떠한手提型보다도 豊富하고强大明朗한 再生音을내입니다 現品을보십시요
J二の五型
빅타ー포ー타불
J二の五 (黑色) 金五十五円
J二の五B (靑灰色) 金五十五円
J二の一〇 (靑灰色) 金五十五円



臨時新譜
테너ー 安基永氏 專屬 첫作品
民謠 농부가 (아리랑) 一〇一
流行歌 希望의노래 金彰培 一〇〇二
浦口의哀想曲 一〇〇二
지는옷잎의 안타까운 鄕愁 一〇〇三
家庭劇 申不出氏 入社 第一回作品 쟁광이아이기 四〇〇一
시에론레코ー드

日英米專賣特許
시에론蓄音器
新型發賣

家庭

한여름 놀고나면 참을성이 푸러저

개학날이림박한 애기네거두기 지금부터 옛습관으로

이제는 녀름ㅅ방학의 긔한도 거의 다하게 되야 차차 새학긔의 개학이 가까워 옵니다。 달포나 애기네들을 마음대로뛰고 놀리다가 갑작이 책을 차즈라거니 책보를 싸라거니 이르고 시키시자면 어머ㅅ님과누님의 수고가 다시 한번 새롭지 안 할 수 업습니다。 그러니까

개학전날이나

전전날쯤 가서서 비로소 서두르시는 이보담 이맘때부터 미리미리 예비의준비를 해두시는것이 어떠습니까? 그것은 어른의 수고를 더는 점으로보아서도、해롭지 안커니와 애기네들은 단련시켜두는점으로 보아서도 조치안습니까?

×

흔히 우리네가정에서는 방학동안 애기네들에게 늣잠을 용서할뿐이、아니라 아츰ㅅ밥도 먹이느라고 전보담느게 되는수가 만습니다。

어른들과가티

그본래 잘하는날이 아닌 것은 몰론에나、지금와서 갑작이일즉 이러키거나 이른 아츰을 먹이기도 펵고한 노릇이 올씨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늣잠잘을 하시고 또 전대로 아츰을 먹이도록 하십시오。그래야 개학후 수월하게 녯습관으로 들아가게될것입니다。 그뿐더러 방학동안 애기네들은

게으른버릇이

생기어서 그저뛰고놀기나 조드하고 공부를 실혀하는 수도드물지를 안습니다。 본래 그것을 예방키 위해서는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한것은 말할것도 업는날이니 이제이르러 이미버릇된그것을 고처주기는 좀처럼쉽지를 안습니다。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때를 타서 배혼것을

복습을하도록

감독하십시요。 그래서 개학전으로 별로 그런버릇을 내버리게 하지 안 하면 안될 것입니다

×

그동안 해수적스럽은 애기네나 해망적은 애기네들은 교과서를 이리저리 굴리다가 이저버리기도 햇슬것이요 또 책은 이저버리지 안햇더라도 하긔과제장이나 숙제는

이저버리고서

안하기도 햇슬것이 아닙니까? 개학을 방짝압두고서야 책을찾는다 하긔과제장이나 숙제를시킨다 야단법석을 하시지말고지금쯤이것저것 보살피어 두시는것이 조치안할까、합니다。

요사이 넘넘한 대에서들은때 서울시키기 위하야 애기네들도 해변이나 산간으로 보내두시엇다가 개학날이 러에 다허야만 비로소 다려오시는 수도잇지안습니까? 시골가서 시원한 바람에 더위를

모르고잇다가

갑작이 늣더위ㅅ속에 학교를다니게 하지말으시고 지금쯤 룰려올려다가 더위에대한 참울성을 좀준비시키는것이 조치안할까 합니다。근본 폐서라는것은 호화스러운 날로서 애기네에게 결국 시킬것이 못됩니다。 학교나 소변다가튼데서 단체로 가는 것은 모르되 그이외에는 보내는 그것부터가 찬성할때 못됩니다。

한번쉬엇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데는 새로운 긔운을 내어 전보담 더잘하게 될수도 잇지만 아조 실증을 이리키어 전보담 못하게 될수도 잇습니다。 이번의 녀름방학을지내고서 애기네들이 그어느편으로 기울어지느냐는 오죽어른들의 주의여하를 인연함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하리까?

해답은고명한분께 드러 내드립니다

반드시누구를지명합시요

복잡한 이 세상에는 별의별별 긔막힌 처지와 딱한사정이 만흔 터이라 자긔의힘을 자긔로서도 엇지할줄몰라서 방황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안흔바 본사학예부에서는 일즉이부터 이점에 류의하야『엇지하릿가』란을 설치하고 가장 진실한태도와심각한 사려로 써여러분의 질문을 대답해드리엇습니다。이비록조그만난이나마오죽 사회봉사를위하야 나아가는 본사의 면목을 들어냄이 업지안하려니와 일방독자로부터 환영파칭양이 쉬지안는것을보더라도 그 란의 의의가결코 가볍지안한것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래의 형식으로 나간다면 아모래도 그 란을 담당한 개인의 좁은주관만이 영향하게 되지 안슬닛까? 우리사회에도 여러선배 가게시고 또 그 여러선배에대하서도 다각각 경앙하는바이다 틀것인즉 그 경앙하는 선배의 의견을 들어다가 전해 드리는것이 더 조치 안켓습니까 이러한 견지아래 일체로 직접으로 대답하기를폐하고 선배의 의견을 소개하기로 정하얏습니다금후로『엇지하릿가』를 물으시려는분은 전과가티 그자신의 모든 처지와 사정을 긔록하시고끄트로 누구에게 뭇어달라고 선배한분의 설명을 지적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 멧가지의 규정이 잇습니다。이아래의 그규정을 직히어 주서야 합니다。

一、풍긔를 문란할 사실은 일체로접수치 안캅

一、질문하시는 분의 처지와사정은 될수잇는대까지 상세히 긔록해보내시압

一、물어달라는 선배의 성명은 뚝뚝이 적어주시압

一、외국에게신 선배라든지 조선안에서라도 특별한곳에게시어 자유롭지 안하신분들은 일체로 거절하압

젓몸살을알는대

問 임신칠삭의 산실세녀자이온대 세살되는 아이의젓을띄지못해서 고생하든중 이주일전부터 소위 젓몸살로 젓에단단한 몽우리가 서고 젓주위전면이 부워 당초에 삭지안습니다 가만히잇스면 그다지 압흐지안은 업스나 조곰웅지기면 때때로바늘로 콕콕쑤시는것가티 압흡니다 얼른 량약을 가르켜주십시요 (市內 李春子)

答 세살까지 젓을 떽이는것은 아이에게 도리혀 해로운것이고 아무의미가 업는것입으로 젓에금계랍가튼약을 발너서자연히 젓을먹지안토록 하시요 그리고 정종오리 선대는二〇%이히 쩌오ー드酒精을시다가 깨끗한 혼건에 처거서 食부를 시하십요。

보약도조흘까요

問 신체영양제로 노루빼고은을 ?빼와 인삼녹용을 소의피를먹으면 영양에조흘닛까 특히 폐병에관계를 자세히 가라처주십시요 (수원독자)

答 어느것이든지 다조흡니다 모도가 혈액을 왕성케하는 것입니다 소의생피를 자실때에는 신선하고 소독이필요할것입니다 너무심하면 신열이나는때도잇스니 이런때만흔 주의하시옵고 또폐결해와의 관계를 무릇사오나 전신영양이 조화질을때라조켓스나 직접으로 결핵에관한리익은 업습니다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米)

각금사산을하오

問 본이는 금념 이십팔세된 과혼녀자이온대 출가한지후로 수차임신해으나 사산만하엿고 또한번은 분만후 수시간내로 사망한일이 잇섯습니다 임신칠개월까지는 태아가잘운동하오나 팔개월부터는 잘놀지아니하다가 사산이됩니다。 그원인과 병명급요법을 지급교시하시요 (王川洞 一讀者)

答 피검사를 해볼필요가잇습니다 피속에 조치못한독이섞겨잇는때에는 류산、조산、사산을 하는일이만습니다 (大學病院產婦人科 金鶴煥)

世界文藝童話集

별의아들 ⑥

英國 오스카·와일드 作 / 崔秉和 譯

이소리에 자긔의슬품도 이저버리고 별의아들이 갓가히가서 보니간 한마리 들톡기가 포수가숨켜논 돗에가치여서 버서날냐고 죽을을다해서 비비대고잇는것이엿습니다。

「가엽게도…나는노예이지만 너를자유(自由)의 몸으로 맨드러주어도 관계는 업겟지」이러케 말하고 별의 아들은 들톡기의 돗을 풀러주엇습니다。

「아아! 당신은 나의 목숨을 구하야주시엇습니다그려。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엿스면 조흘가」하고 들톡기는 말하엿습니다。 그때 별의 아들은

「나는 흰 금돈을 찾고잇는데 암만하야도 차즐수가 업다。 못차즈면 나는 주인에게 백번 어더맛고만단다」하고 말하엿습니다

「그러십닛가 그러면 저를따라오십시오……차저드리지요」톡기는 이러케말하고 별의아들을큰떡갈나무옆흐로 데불고 갓습니다 「그랫드니 엇더케겟습니가 그떡갈나무의 버려진나무를바구니에 외종일차저도업든 흰금돈이 끼여잇섯습니다

「아아、깃부다 너는 나의고생할것을 면갑절 더러주엇다」별의아들은 춤을추면서 즐거워하엿습니다

「별말슴을 다하십니다그려 당신께서먼저 나를구하야주선까닭입니다」 그러케 말하는 동안에 톡기는 보이지 안엇습니다。

一三

별의아들이 동리문압헤 도라오니간 그곳에는 병든사람한사람이 힘업시안저잇섯습니다。 그리고 별의아들이 자긔압헤오니간 나무접시를 뚜들기기도하고 방울을흔들기도하면서

「문안푼적선하십시요。저는 굴머죽게습니다」하고 말하얏습니다。별의아들은 엇더케 할바를 몰낫습니다。

「나는 금도한닙밧게 가진것이 업소。그런데 이것은 주인에게 갓다드리지 안으면 나는 가죽채죽으로 백번맛게되닛간」 그러나 병든사람은 몃번이나 몃번이나 졸가차게 조르므로 그여히 별의아들은 흰금돈을 던저주엇습니다。

마법사의집에 가다오니간 마사는 즉시 무럿습니다。

「흰금돈을 차저왓느냐」

「못차저왓습니다」 별의아들의 대답이 끗나자마자 마법사는그

에게 옐버드려서 체속으로 갈고가서 딸각 문을잠거버리엇것읍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데옵니다。

求婚行

短篇小說 (十) 嚴興燮 作 / 高一 畵

나는또다시 연극을 시작햇다 나는 전일의 R양의 경우에서 방은 경험을 참고하야 쵸신다른방법으로 종호를 코ー처햇다

「어룽어룽할것업네 세파에부대시긴 여자라야돼!」

하고 또다시나는

「자네 백화점에가서 넥타이끌나봣지 끌느기시작하면 한정이 업는걸세 끌낫자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거든 구태여 그까짓것 땀죽죽흘니고서서 점원에게 눈총맛고 졋엣사람에게 빈정대이고……난 넥타이끌으는놈보면 시러배애들인줄아니까……결국은 끌낫댓자 첫번선듯 붓잡엇든놈만 못하기가일수라말이야……」

내가 이러케말하면 어느정도까지 내말에 휩쓸이는듯 하면서도

「그러치만 사람고르는것과 넥타이 끌으는것과는 달으지 안어?」하고 빙그레웃음을띄인다

나는 어느날밤에 숙희를 다리고 거리로나왓다

거이 R양의 경우와 흡사한 형식으로 종호군과의 대면을마티엿다

「참말로 그게 처녀여?!」

하고 종호는 여전이 미련을청산하지안엇다

「자넨 그것부터 청산해야 되네 처녀인가 안인가를 알고십흔것은 총각인 자네로서는 무리가안일넌지도 모르네마는 첫재 알어야할것이 그녀자의 의지(意志)의 힘일세!」

나는이러케 종호의 잡념을 꺽거놀느기에 애썻다。

「그런데 뚝뚝하긴 한데 좀신경질것잔어?」

「원래 녀자의 성질에는 대개 신경질이 만으니까 더구나 좀 날새보이고 약삭바러보이고 산듯한맛이 잇는녀자는 거이가신경질더괴질을 가지고 잇는것일세……」

나는 이러케 말을던지고나서다시

「말하자면 자네 점액질에갓가운 편이니까 천생 배필일세이 사람아 왜그러나 하면 말야추근추근하고 느리는 자네성격에 좀산듯하고 새침한 신경질을가진녀자의 성격을 결합 식히면 반다시 조화(調化)가 잘될줄아네……」

나는 무슨 결혼회설이나 아는듯이 종호에게 한바탕설교를 햇다。

몃칠이지냇다

가는비가 솔솔나리는 저녁때나는 임무를띄고 숙희를방문햇다

「종호군에대한 감상이엇더세요?……」

하고 이야기주머니를 벌니자

「……나는별로 감상이업서요」

하고 조곰 새침해지더니 그러나 또다시 방그레웃으면서입을 연다。

「그분이 총각이시라는데 나갓흔 소박데이와 결혼할나구요?

「아ー니、그것은 절대로내가책임질터이니까 렴려마시고 다만 당신이 종호군에게대한 악감만 업다면……」

「악감가질거야 무어잇나요?」

「그럼 불만되는점은?」

「불만할것도업죠、무어、금방술적만보고 사람의말을 알수잇서요?」

「허기야 그러치만 종호군의결점은 팍ー무가지잇슬것가튼데요」

「무어、귀적은것말슴이로구료? 별말슴을다하시여……」

「보시는바와가티 종호군이 열끌은 미남자가안입니다」

「온、선생님두……」

하고 숙희는 내말에 좃다답중이생겻는지

「남자란 인물만 잘나면 제일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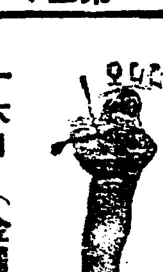
하고 툭 쏘아넘기더니 이윽고「남자란 얼골가죽이 반반하고 허울이멀죽하면 꼭 그갑을 하지요 꼭하지요!」

숙희의 이말은 확실이 숙희자신이 체험한 고백과도 가티 들이엿다

나는 올타 됏다는듯이 이를 을 타서 적극적으로 종호의 선전을 계속하엿다。

나는 숙희의 록나는밤을 노리고 잇다가 삼사차나 종호와의 접촉긔회를 만든다음 좀더 그들사이가 심각하게 비범하게 정렬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라든차에 숙희에게선 한달에 한번오는 휴가일이 왓다。

나는 아츰일직이 숙희를 다리고나와 종호와 회견식힌뒤푸른 소나무 그늘이 욱어진 동대문밧 청량사로 끌고나갓다。



十六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식골쥐와서울쥐 全一景 新興童人會

(配 役)

어머니……………韓和子

순淑(그의딸)……鄭慶南

마리아(上淑의동무)林敬淑

할아버지……………文烈

아이스크림行商……鄭龍得

中國料理人……鄭浩根

演出 鄭英徹

◇同六時五五分 兒童特別講座 (二) 물에서놀때의注意 李在崑

◇同八時 農村特別講座(五) 水稻栽培에對하야(一) 朴善日

◇同八時三〇分 꽝라령外 一、꽝라령 二、新調가세타령 三、시설방아타령 四、처녀가 五、군밤타령 閔亨植 許英淑

◇同九時 피아노獨奏 一、발스第三番…쇼팡作曲 二、발스第九番…同上 三、諧謔曲第三番 同上 四、폴로네즈 A흠장조長調…同上 J·B·스투데니

◇同九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滄浪歌 (다)唱劇調 바라령 鼓手 韓成俊 姜太弘

◇同九時五五分——第一放送——

國際放送(엘리쿼부터)

十七日 (土曜)

◇午後六時三〇分 少年美談 少年探偵 李亨植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七時 兒童特別講座(三) 夏季害虫에對한注意 醫學博士 鄭求忠

◇同八時 農村特別講座 水稻栽培에對하야 (二) 朴善日

◇同八時三〇分 流行歌曲 一、鴨綠江의뱃사공 二、가시울소서 三、順風에돗을달고 四、먼동이터오른다 五、아득한千里길 六、處女總角 七、님이여잘잇거라 伴奏 姜弘植 JODK管絃團

◇同九時 古調 忠則保命 金鍋九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金花香 李月色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前一〇、三〇 (東)婦人의時間

◇午後〇、〇五 하ー모니카

◇同六、〇〇 (東)南童青樂會

◇同六、二五 心田開發講話

◇同七、三〇 兒童과家庭의밤

◇同八、三〇 (東)水上競技實況

◇同九、〇〇 時事解說

十八日 (日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비구나구 들이서 二、獨唱 고향하늘 三、齊唱 닭알 四、同 힌옷배 五、獨唱 미깡배 六、齊唱 달잡이 七、同꽃 八、同여름 九、獨唱 별님 忠信樂院兒童 伴奏 金龍燮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話 最高道德 李東旭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寧邊歌 三、개성난봉가 四、양산도 五、청춘가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玄山玉 高敏德 細笛 丁正烈 鼓手 池龍九

◇同八時一五分 唱劇調 一、短歌 鎭國名山 二、唱劇調赤壁歌

◇同八時五五分 名曲鑑賞 (레코ー드演奏) 피아노와管絃樂 皇帝協奏曲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아다ー지오포코못소 終結章 론도(알레그로) 解說 玄濟明 朝鮮音樂家協會

◇同九時四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時調 三、지름 蔡奎應 金明求

曆

八月十七日 (土) 舊七月建癸未(大)十九日 乙丑·金·柳·執

◆立秋八日(舊七月初十日)

◆末伏十二日(舊七月十四日)

◆處暑(廿四日舊七月廿六日)

윤제 潤製 라이온齒磨

齒牙를强健美麗하게

산뜻한香氣로

여름에가장爽快

10C—106

補血强壯新藥

부루도

各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더위에지친몸에

부루도ー제를補給하시라

부루도ー제는左의疾病에가장合함

急慢貧血、全身衰弱에

早味 (半ケ月分 一圓二十錢 / 一ケ月分 三圓二十錢)

神經衰弱、皮膚病諸疾患에

아르젠 (半ケ月分 二圓三十錢 / 一ケ月分 三圓七十錢)

腺病質、虛弱兒童에게

요ー도 (半ケ月分 二圓三十錢 / 一ケ月分 三圓七十錢)

食慾欠損、產前產後에

키나 (半ケ月分 二圓三十錢 / 一ケ月分 三圓七十錢)

肺結核、慢性氣管炎에

아구콜아 (半ケ月分 一圓六十錢 / 一ケ月分 四圓三十錢)

「活動의源泉」이란冊子 請求次第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京城府西小門町 本店 大阪

KB—53

大邱 其一

大邱 金台原

大興電氣株式會社

府會議員 大澤新三郎

道會議員 秋秉和

道會議員 府會議員 辯護士 金完燮

府會議員 島田金四郎

府會議員 道會議員 秦喜泰

府會議員 靑木勝

府會議員 裵炳烈

大邱 金玉培

府會議員 內山喜三郎

府會議員 小野元太

府會議員 古谷沿輔

道會議員 坂本俊資

張稷相

合資會社 達城券番

大邱 朝鮮酒釀造株式會社

大邱米穀取引所

大邱府

朝鮮生絲株式會社

大邱製絲株式會社

片倉生絲株式會社

大邱金融組合理事一同

大邱 金曜會

慶北道金融組合聯合會

朝鮮酒造協會 大邱支會

鬱陵島農會
同漁業組合
同繁榮會

大邱 朝陽無盡株式會社

大邱 朝鮮酒造組合

達城郡農會

慶北漁業組合聯合會

大邱專賣支局
大專俱樂部

大邱無盡株式會社

第一殖産株式會社

浦野印刷所

大邱印刷合資會社

大邱製氷株式會社

東亞釀造場 李鍾華

大邱雜貨商同友會

慶尚自働車部

李長春

大邱府市場町 姜致雲 「電二八二」

徐昌圭

坂本忠雄

安斗華

大邱 常設映畵 萬鏡館

池二洪商店 「電八八八」

별의나라朝鮮 (1)

星辰에應한地上의都城

安在鴻

『銀河水한울엔 별도만코…』라고 밤의거리에 아장대는 아이들이 푸른하늘銀河水 隔여프로 반짝어리는 귀지업시떠서잇는 크고 작은별들을보고

時體(流行)의 노래를 부르고잇다 朝鮮은北斗나라라 空氣가 깨끗하고 山川이 明朗하야 파-라케 개여자친 노픈하늘에는 여름밤에도 만흔별을 볼수잇스니 가을 ᄯᅢ올에는 더할말이업다 별의名節인 七月七夕이 갓지난 이즈음이지마는 七夕의바로 前날까지도 아즉도三伏中에 ᄯᅢ아닌 새ㅅ바람(東風)이 南支那海에서 몰려오는 水蒸氣를 다썰어버려 말숙히 아지랑이 벗슨창가을하늘에는 이야이되는

牽牛 織女星을 하늘의 한복판에 ᄯᅳ고 한별도두른별 누른별 붉은별이 이나라의자랑인 明麗한自然을 옛밤동안 보여주엇다 城西의名所인 松月洞의 어랑바위에는 어머니를 여페뫼신 나어린 오뉘들이 돌편을자리삼어 平和로운 納涼을하면서 고개를 자치고 하늘을 우러러 『저기저거아니야? 저거는 잡신할미, 저거는 잡선하라비』하면서 織女星과 牽牛星를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옛부터 傳說을 속삭이는것이다 이러한것은 朝鮮情趣의 무르녹은 山河의香내나는

民俗 을 說하는 조흔 現象이다

×

늘보고 또보고하되 아름답고 神秘한것은 별나라의 情狀이다 銀河에 神吟하는 손이 여러가지 그립고 아쉬운中 달과 별이 편은 그리운것中의 하나이오、三四年間 밤의하늘을 못보다가 自由의 몸이되어 개인하늘에 흩진 나온 밝고도 밝은 별을보면 自然界의造化가 感謝한생각도 돌고 마음情熱이 잇는 人生이면 남모르게 한숨기 눈물도 내릴수잇는것이니

大地 의 가득한 山河萬里 莊嚴 또秀雅한 風景美와 한가지 大宇宙의 秘奧를 감추은한 별나라의 燦爛함이란 人生이누릴수잇는 最大한 藝術美인것이다 六百萬의 人口를품고 高樓巨廈가 大地도 누를듯 찰뿐더러 烟霧가 항상 太空을 휘덥는 런던市의 住民들은 平生에 별구경이라곤 해본이 입고 거긔서도 地方旅行을ᄯᅢ해보앗슨 年少者와 一部의 婦女子들은 大戰亂中 제펠린飛行船이 不時에 侵入하는통에 全市街가 모주리

消燈 을하고 ᄯᅢ마침 太空이 깨끗하게 개인것에 꿈나라에서처럼 가무락대는 金가루가튼 별들을보곡 아하! 저것이 별이라는것이로군! 하고 조하라고 납뛰엇든것이다。東京 京都의 天文學者들이 별이야기를 실컨하고서도 의례로처럼 가을겨울에야 별이야기를하나 여름밤에라도 별을 마음것보든것은 朝鮮이 가진 한特色이다

×

人類와 별과의 關係는 매우 깁다 古生物을 硏究하고 古社會를

嗣心 하는者는 七十萬年以前 人類의 中祖上인 類人猿적부터 天象崇拜피기 始作한것이라고한다 그證拠로는 머리를 가지어 하늘을 보든채로 不慮의 大天災에 흙에무치어 끈느러진 古生層의 두러운흙속에서 파내온 원숭이의化石을어루만저 깃버하는것이다 篆者年年 天神의神武時에서 蒙昧의장흘새 無限悲壯한 高原의밤을보고 동ᄯᅥ게굽거진 만은氷河期에 부른 별들의魅力에 반하야 우리의 先民들과별과의 文化的交涉이 야지아니치엇슴을

直感 하엿다별은『배얼』이니『배든孩。生尊殖을 意味하는 바로 그語彙가 極히넓어 古文化의 根幹部에 關係되어가고 『얼』올。『鑑』이니 古代社會의 사람들은 物質的인人生世界의外에ᄯᅡ로인 支配의 方法을가진 未可知界의무엇으로 믿든存在이다『배얼』『별』로 合稱하여 一名詞가되엇스니 『별』은孕産卽命의 神秘한 支配者로 및엇든것이다

學藝

우리의現實과哲學

…歷史的인이때의限界狀況…

(三) 朴鍾鴻

希臘時代의 現實을떠난이러한 觀想的哲學은 近代에 이르러서도 이系統을 傳承하는 哲學者들로하야금 드되어純粹한哲學的思索을 爲하야서는 모든 現實的要求가 滿足된 精神狀態에到達되여잇서야 되는것이라고생각케하얏고 따라서 現實에 對한 모든 俱體的關心이 이미 捨象되어버리김을 要求하게하얏든것이옵시다 果然아리스토텔레스의

影響 을 마니바더다는 近世哲學者 헤-겔은 『思惟의靜寂한 場所에잇서서는 여러民族과 뭇個人들의 生을 움직이는바모든關心은 沈默한다』고 말하얏습니다 이런 民族도몰ᄂ다 社會도몰ᄂ다하야 現實로부터 逃避하야버리哲學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될 指導的實力을 求한다함은 그야말로 緣木求魚의 識浪한濫措라 아니할수업슬것이옵시다。

이러한哲學은 그어느것이나人類社會를 救援해내긴커녕 그結果에잇서서 哲學者라는 個人을 社會로부터 孤立시키고마는 그나마 觀念的으로 孤立시키고마는 哲學이되고마는것이 올시다 現實的인 이世界가 沒落하야버린때에나 비롯오 始作되는 哲學이되며 生의老衰한 姿態에趣生의

新鮮 한 活力을너주는 힘이업고 다만 그老衰함을 멀거니바라보며 認識하는데 不過하는 哲學이되고맙니다 이러한 觀想的消極的態度가 압흐로 한거름만더 나아간다면 東洋에서 우리들이 흔히보는 人跡이끈친깁흔山中으로 隱遁하야 숨어드는바 이世上과因緣을 끈은哲學이생기게되고 西洋哲學史上 所謂倫理時代의 怪常한 實踐躬行이 나타나게되는것이 올시다 腐敗한 俗世를 蔑視하든끄테 조고마한나무통속에서 살고잇든 哲學者디오게네스가 일즉 그를 訪問한 『알렉산더大王』으로부터 너의 平生所願이 무엇이냐』고하는 물음에對하야 如前히 그조고마한桶속에서『예 願컨대 大王의몸그림자가 나의 이桶집으로하야금저

太陽 의 볏을 보이지 못하게하지나안토록 좀비켜서 주시기만바라나이다』하엿다는것도 이때의일이올시다。

이러한 哲學者들은 哲學이라는 學問속으로 逃避하야 숨어들어서 自己로서는 이더럽은實社會라는 現實로부터 救援되이라고 생각하엿슬는지도 몰으지마는 그實은 社會의 現實에對하야 눈을감고 生을斷念하야苦에 忍從하는 消極的 心術이學習되엿슬뿐이오 여기에서 哲學은 한갓內面으로만 沈潛하야스사로 孤獨한 靈魂속에서 安住의땅만찾기 始作하게된것이올시다。이리하야 그네들을 둘러싸고잇는 이現實界는 그네들의게 잇서서는 그네들이 無視하여야될世界로 化하고맙니다、그러나 아지못하게라

無視 하려면 할사록 더 一層ᄭᅢ세게 抵抗해오는 이現實界의 矛盾的對立을 우리는果然 冷然히도吾不關焉이라하야 나몰은다할수잇슬것이겟습니까。

그러나 單只알기爲하야서의學問 現實을떠난哲學이라는 思想을 現代에잇서서도 그냥가지고잇는사람이 잇지안은가 그것은 엇더한緣故로써인가 나는簡單히 두어가지로區別하야 생각해보겟습니다 첫재로는 人間으로서必需한現實的要求를 힘안드리고도 滿足시킬수잇는社會的處地에기ᄯᅢ문에 아무런切迫한要求도 가지지아니한사람들의 일이올시다。勿論사람의生活이란 스사로엇던한現實的要求가잇기때문에 거기에서問題가 생기고 다시그問題를積極的으로

解決 해나아가는 곳에生活自體의 本色이들어나고 할수가잇습니다 그러나元體 이現實에잇서서 切迫한要求를 가지지못한사람의게는 現實그自體로부터 問題가 생길理萬無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의問題를 傳統的으로 그대로 自己의問題로 삼게됩니다。여기에서提出되는바 비러온生氣업는 남의問題는 本來가自己의 切實한問題가아닌지라 한갓槪念的으로 言語上에잇서서 落着만되면 그만이오 何等實踐으로서의決定的解決이問題가아닌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와는因緣이먼 閑暇한現實속에 사는사람들의哲學的態度라할수잇습니다。

다음에 現實로부터

遊離 된觀念的 哲學을守하는바를 재래由로는 大槪바야흐로 沒落過程에잇는 그엇던社會的存在는 그들의發展의 特定한段階에 抑止로라도 머물러잇서서 一定한形體를固執하지안는다면 自己維持하야 나아갈可能性이 업기때문에 必然的으로 保守的이며 傳統的으로 아니될수업는 境遇올시다。나날이 變遷하야 마지안는 새로운事實보다도 現實과는相關도업는 녯날것이 無條件的으로 珍重되어지는 境遇올시다。마치骨董品의 蒐集家모양으로 겉든愛着을 지나간過去에對하야서만 혓되히 품게되는境遇올시다。

銷夏清品

獎忠壇에서北漢山眺望 【1】 李仁星

實驗室餘聞 ②

샘물로實驗하는 『潮力發電』

發明家 尹愼榮

爲先이題目이 나에게 엇더한가 實驗室이라하면 大槪는 그무엇을 聯想식이는데나의實驗室이라하면 OeS 7坪이다 왜냐하면 實驗室ᄯᅡ로는 업고 萬若머리에서 짜낸것을 손으로 맨들ᄯᅢ면 방 마루 마당…외러를 날뛰면서

朝飯 夕粥이 잇다 하면 朝飯을 夕飯으로일수맨드니까 주제넘게 餘閒도敢不生意이다。그러나 夕飯을밥참으로삼고 實驗室에 안진체해보자。내가 二十五六年前부터 從來에 업는物件을 形成하려고애쓰는것이 每年에한둘식은 纖維하여왓스니까 其間에 되것 안되것모다 주어친다면 五十種이될 되겟지만은 其實은〃되것〃보다 〃안된것〃이더만엇다 그러니까 事倍功半도 못되는 바보짓을하여 왓지만은 그進行中에는 남모르는 趣味를 맛보다가 完成한瞬間에는 飛上天할듯이 快樂하고 또 안될것을 아는때에는 悲觀한

修養 되는것 等等其이 나의것이오 그外에는 거의이모것도업다。래서나는 생각하기를 〃發明은 庸才도 하지만 利用에는 天才가 잇나보다』한다 庸才가 天才를 쫓치려면 촉새가 황새를 쫓친가다 다리가 찌저진것 가타서 차라리 저생긴대로 구구로 지내는中에 될수잇스면 快樂이나 더엇찬다

目前에 걸려잇는 問題는『潮力發電』이다 아즉 完成이라는것이 아니지만은 김흔 自信이 잇슴으로 潮水대신에 井水를가지고 發電할 機關을 ᄯᅩ등겨 맨드는 中인데 不遠間에 이 더러운 家畜場內에나마 작난감가튼

發電 所를設置할려고 諸般進行中이다 그러나 一月(昨年)에 發表된 全部까지의것만이라도 圖解紹介한다면 누구나 一月歷然할듯십호나 紙面과 其他關係로 詳細는 後機로讓하거니와 爲先 槪念을 紹介한다。

原來『潮力發電』問題가 世界에 퍼저잇스니 例하면
英國의 Severn Thames河
佛國의 北海岸、Granville
米國의 Nova-Scotia
獨逸의 Wilhelmshaven
方面에서 各各計劃 들이잇는데 一般으로潮差가 三米突만 넘으면 經濟的價値를 주는데 그計劃하는方法들은 別것아니라 海岸適宜地에다가 긴

堤堰 을 築造하여서 潮水出入時에 生하는 落差를 水車로利用發電하자는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目前에노여잇다십히한 仁川港附近의 潮高는 世界的으로 珍貴한 九米突半이 넘는것이야 天與의幸福이 아니고 무엇이랴 前記한 經濟的價値 잇다는標準의 三倍를넘으니까 一般計劃대로 堤堰式을 行한대도 礦産有利할것은 分明함으로 朝鮮總督府에서도 調査하여가지고 잇다한다。

그러면 거긔에야 내가새삼스리 무엇을

容喙 하라마는 나의案은 決코堤堰式으로서는 間歇的發電을 하자는것이아니라 더한層 經濟되고 繼續으로 發電하자는 것인데 모든것은 우리마당의 實驗이 끗난뒤에 이야기요 그러자면 작난감 갓흔 機關부터 마저맨들어야 하겟쓰니까 이만끗는다

一九三五、七月四日

小品

닭을채인이야기 【四】

白石

시생이는 한손에 두머리닭의 목아지를 껴쥐고 당울넘엇다。닭은 죽은지가 오래다。개는날이새어야 돌아올것이다。디평령감장은 돌아오는개보다도 늣게야 잡을쨍것이다。밤의파대기가튼때라 시생이는 조급히 궁것은업섯다。죽은닭을 들이워보앗다 펑문이에 껴보앗다하며 담비탈을돌아 새판으로 올라가는길에나와섯다。길가 묵은새덤이에 버더올라간 호박넝쿨에서 반디불이 밝엇하고날어가는것이 시생이게는 마저죽은 제닭의、그닭도병아리의 넉시 와보다가 돌아가는것이엇다。북두칠성을 향하고 떨어지는 별ᄯᅢ가 ᄯᅩ 구신과말고하게된 시생이의눈에ᄯᅴ엿다。그것은 마저죽은제닭의 그닭도 묵은 암닭의 넉시 담밋까지 못오고 한울의지옹 弓랑이에서 시생이를 날여다보고잇다가 돌아가는것이엇다。

길에나선 시생이는 닭을가지고 집으로갈까하고 생각하다가 가서는안된다고 생각을햇다。디평령감장만해도 죽인닭을벌이고 갓다。시생이는 피도 뽑지못하고 죽은닭의 피섭이운 봄은고기를 먹으며 피섭이운 마을도 가리넘엇스는것이다。시생이도디평령감장에게 제닭의 피섭이운고기를 먹이자고 하엿다。

그래서 시생이는 몬저 헤뻑아리한머리를 산미테 별이기로 하엿다。령감이 업서진닭의 일억이라도 차저 산으로 와다가 죽은닭을 들고 돌아가게 하고시펏다。령감장은 산숨생을 의심햇것이다。들고가든 벌을 노코달어낫다고 령감장은 어뇌산별에서 해바라기나할 산숨생을 락업시 비웃을지도 모른다。밤인닭을 날이밝기전에 여호나 살기즘생이 령감보다 몬저 주어갈지모르나 그것은 안개가 끼지안흘닭의 일이고 안개는 이산숨생들의 운에 달린것이다。시생이는 이러케 생각하면서 한머리닭을 힘업시 산미테 별이고 돌아섯다。

디평령감장의 눈이 둥글해지게 할것이다。살찐암닭을 시생이는 이번에는 령감장네 새ㅅ덤이아래 틀어너헛다。아츰이면 닭이 업서진것을 알게될 령감장은목새ㅅ덤이 미레사는 쪽재비가미안하다고 그는 작시미대로 새사람이미를 들쑤시다가 아니나다를까 죽은닭을 어떠들을것이다。내닭이 이러케되엇구나하고 죽은닭을보고 눈에 홰스물이나서 령감장은 그만 들엇든닭을 팽개치며 욕을할것이다

『이놈의즘생을 이거 어디카노!무슨 변괴디변괴야!』하다가도 욕하고 나는령감은 일이 수상하다고 눈을검버걸일것이다。

新刊紹介

▲更生 八月號 廣島縣赤崎町日本赤十字社 廣島支部綵輪療養所內 更生社發行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彰如此 八月號 京城府中學洞一 朝鮮少年團總本部외여차編輯部發行 定價十錢

▲쩌-날리즘 創刊號 京城府梨花洞一九〇 쩌-날리즘社發行 振替京城二二七六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春園全集刊行

三千里社에서는 春園李光洙全集을 刊行하기로되야 第一回配本 長篇小說『그女子의一生』은 벌서 今日부터 發賣를 開始하엿는데 이 全集은 全十卷으로되야 文藝作品은 勿論、政治、社會、文化等 各方面의 著述을 全部收集하리라하니 春園著作의 集大成이 이에 實現될것이라한다 그리고 編輯委員은 다음과가다고한다

韓龍雲 廉想涉 田秋湖 李泰俊 金岸曙 玄憑虛 金東仁 梁白華 朱耀翰 張赫宙 金東煥

黑風 【105】

韓龍雲 作 金熊超 畵

담정(探偵) 14

왕한은 처음에 순옥이가 소옥에게 가는 편지를 가지고나오는것을 볼때에 가슴이 선뜻하며 무서운 의심을 가지게 되얏스나 세상에는 공교한일도 업는것이아니므로 그편지가 혹은 순옥이가 직접하는것이 아니라 다른사람으로 부터소옥에게 보내는 편지가 어떠한 인연으로 순옥순에 드러오게 되엇것이나 아닌가하고 생각할수도 잇섯스나 순옥이가왕한을 보자 스스로 이기지 못할만치 황망한것을 본다든지도는 급한편지를 부치러 간다는 말을 드른뒤에는 확실히 순옥이가 소옥에게 편지를 보내는것이라고 단정되얏다

그러타하면 순옥은 전엽에왕한을 맛낫슬때에 소옥은 세상에 용납지못할 사람처럼 비방하고 공격할뿐 아니라 왕한이가 소옥의 학비를 먹는것까지 비루하다고 하야서 그것을 거절하라고 권고한일까지 잇섯슨즉 순옥은 본래부터 소옥이와 교제도 업섯슬것이오 가령 교제가 잇섯다 할지라도 지금와서는 편지할일이 만무할터인대 순옥이가 소옥에게 편지를 한다는것은 만번이나 의심나는 일이오 순옥의 실색하는태도로 보아서 심상한일이 아닌것을 알게되얏다

그뿐아니라 전일부터 왕한은 순옥의 말과 행동에 대하야이상하게 보앗고 성원이가 까닭업시 자긔에게 석기게 하던일에 대하야도 순옥이를 의심하든 차에 그광경을 보고서는왕한은 무서운 꿈에서 깨여난것처럼시원도 하고 불쾌도 하얏다。

그러나 그것이 일의 끗판은 아니엇다 왕한은 그편지의 내용을 보지안코는 확실히 알수가 업슬뿐 아니라 그편지의 내용은 반듯이 중대한 사건이 잇스리라고 생각되야서 엇지하든지 그편지의 내용을 아라보리라고 결심한 왕한은 그방법에 대하야 생각하야 보앗다 무론 순옥에게 무러서 알일은 아니고 그 당장에서 폭력으로 그편지를 빼서서 볼까하얏스나 그집에 다른사람들도 잇고 그처소가 도회의 한복판이니 만치 일이 와짝하게 버려지면 도로혀 묘하지 못하겟스므로 다른계교를 생각하야보앗다

『그러면 편지 부치러 가시지오』

하고 왕한은 순옥의말을 대답하얏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오셋스니까도로 드러가야지오』

하는 순옥의 말은 그대지 친절하게 드러가자는 말이 아니라 인사쪼로 부득이하야서 하는눈치가 완연하얏다

왕한은 순옥이가 친절하게 드러가자고 강권한대도 드러갈생각은 아니엇다

『아닙니다 특별히 볼일이 잇서서 온것은 아니고 지나는길에 들녓습니다 다음에 일부러 와서 오래놀다 가겟습니다 편지부치러 가시는대 산보삼어서 모시고가겟습니다』

하고 왕한은 먼저 문밧그로 나오다

순옥은 무슨죄나 지다가 들킨것처럼 놀나고 불안하야서 실론은 왕한을 만류하고 십흔 생각도 업섯다 그뿐아니라 왕한이와 동행하고십흔생각도 업섯다 그러나 편지부치러 가는대 무슨리유로 가치갈수가 업다고 까지는 할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모시고 가는것이 다 무엇이야요 고만두서요』

하는 말로 인사겸 거절겸하얏다

『천만의 말슴입니다 모시고가는것도 불가할것이 업고 ᄯᅩ나는 순옥씨와 동행하는것이 깃부기도 하고 영광도 되는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옥씨는 날가튼 사람하고 가티 다니는것이 수치가 될는지도 몰르겟지오 만일 그러시다면 구태어 동행하자고 할수는 업스나 그러치 아니하다면 모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ᄯᅩ 다른길 갓흐면 가티가는것이 실례가될는지 모르겟지마는 편지부치러 가시는길이야 동행한대도상관이 업것지오』

하는 왕한은 허허 우섯다그리하야 순옥으로 하야금 동행을 거절할수가 업도록 하얏다

大邱

大邱府南城町八九 金弘祖乾材藥房 長電話一五一八 振替京城一〇八一九

李章雨

大邱府幸町一番地 共榮自働車株式會社

朝鮮大邱府南城町 人蔘鹿茸店 藥材貿易 嶺一堂大藥房 電話一五七六番 振替京城一〇八五六番

木村綾治商店

大邱西城町 小兒科 海光醫院 朴時英

慶北商會 徐丙元

內外科、產婦人科、齒科 救世醫院 電話五七〇番

合資會社 松原洋行 電話長三五〇番

外科專門 樂山醫院 院長 崔日文

辯護士 趙柱泳

大邱府京町二丁目 永生醫院 電話一二三六番

道立大邱醫院

大邱府南城町六 明濟醫院 權商圭 電一五一七番

大邱府醫士會

大邱米穀取引所 會員 若林末夫

松井病院 電一一四六

大邱府京町 好生堂醫院 電話四一〇番

環濟醫院

會員組織大邱米穀取引所會員 張吉相商店

米穀商 大陽商會 大邱府元町二丁目

順天堂醫院 金成國

大邱府元町一丁目三二 大邱穀物株式會社

南山病院 院長 金在明

官鹽特約店 米穀商 壽昌商會 大邱府大和町 電話一七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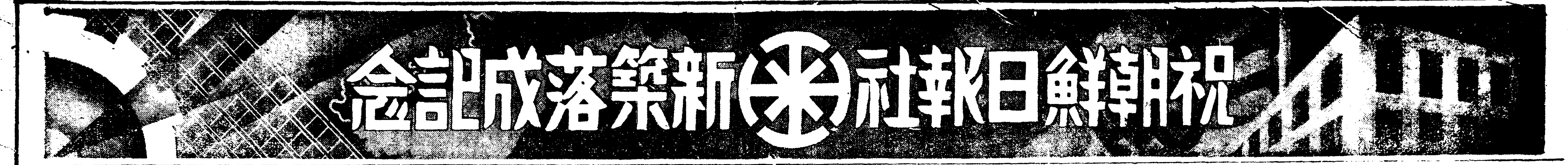
長城

長城公立學校長團 一同

長城郡廳

長城郡農會職員一同

長城郡學校費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府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京城府本町一丁目五十一番地
藥種商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京城府鍾路四丁目
山崎仁壽堂
山崎廣龜

劑病 靈藥
赤玉腸丸
酷暑警戒
下痢 腸カタル
腸胃衰弱
しぶりはら
脱力感 疲労感の人は
先づ赤玉腸丸を
試みられよ 恢復早し

京城旭町
樂天堂製藥株式會社

京城府本町二丁目三六番地
藥種貿易商 株式會社 北島藥店
電話本局七六一・一五九五・四一四一番
振替京城二八五番

京城府本町二丁目
化粧品問屋
杵屋號
山本惣三郎
電話 長本局二三四四番 本局四三四四番

石鹸化粧品問屋
月本善次郎商店
電話本局二二二八番

京城府本町一丁目
內外化粧品 舶來裝身具 婦人雜貨
夏川京城支店
電話本局二八五番
振替京城一五三二番

京城府太平通二丁目百三十三番
德國顏料廠
電話長本局一一三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二十二番地
原料染料 工業藥品 合資會社
福壽洋行直賣部
電話本局長五二五八番
振替口座京城九三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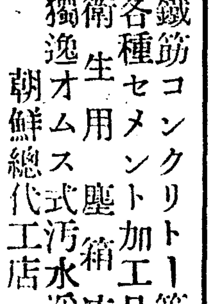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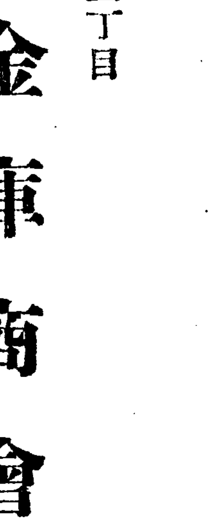
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二ノ五
電長本 三三三三・三九一四番

朝鮮總督府鐵道局

營業
鐵筋コンクリート管
各種セメント加工品
衛生用塵箱流
獨逸オムス式汚水淨化工事
朝鮮總代工店
合資會社 河手セメント工業所
代表社員 大野拾藏
京城府黃金町五丁目
電話本局二六三二番

京城府黃金町二丁目
合名會社 湊金庫商會
電話本局二一六五番
振替京城五五八三番

京城本町二丁目三十九番地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電話本局 長二六二番 三三九番 四八〇番

京城鍾路二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話光化門四八
ビクタ의蓄音器

新型電氣蓄音器
ポリドール蓄音器
手提型新發賣 三十圓 七十五圓
箱型外電氣蓄音器 四百五十圓

レコード는 ポリドール ビクター共 和樂洋樂 鮮譜共 全部具備하엿合

現在의 數倍를 目標 大平壤建設計畫
府行政區域大擴張을 考案中
實行中施設完了를 따라

【平壤】대평양도시 계획의확립에따라 평양부행정구역 확장에 관하여 부당국에서는 작년이래 각반 관계조사를 행하는일방 준비를 진행중이던데 전번 소화사년의 부행정구역확장때에는 약십년을 요하엿든 전례도잇슴으로 실현까지에는 다소시일을 요할모양이나 현재의 부행정구역으로는 협착하기 짝이업서서 보통강개수 대동강하항(河港)의 완성되는때까지에는 현재의 수배가되는 우편국 압헤서잇는 리강표(里程標)를 중심으로 방경(半徑)십이리가되는 지역을 포함하는데 평양도시계획이 진행되고잇다

이번의 이계획으로 북편으로는 이번에 신설된 서천면 인흥리(西川面仁興里) 평양상설가축시장(家畜市場) 동편으로는 추을미면(秋乙美面)의 사동광업부 남편으로는 정백리(貞柏里)에서 락랑구적(樂浪古蹟)에 밋치고 서편은 보통강신운하(普通江新運河)를 포함하는 막대한것이라한다

新京을 活舞臺로 軍部를 팔고 詐欺漢
平壤에 潛伏中逮捕

【平壤】평양 헌병분대에서는 신경(新京)을 무대로 군부를배경한 사긔범인 신경상리(殷上里) 방용환(朴用煥)(三)을 십이일 체포하여 취조중인데 범인은 평북태천군 태천면 동부동(泰川郡泰川面東部洞) 출생으로 길림대마로(吉林大馬路)의사 한상은(韓尙殷)(四)의 병원설치계획을 알고 자긔는 ○○사령부(○○司令部)관계자이므로 군부당국자들은 물론 조선총독부 고관들과도 친한 관계로 병원설치에 대한 것은 군부와 모대관에게 소개하여 허가를엇게하여주겟다고 감언으로 속인후 병원의번영책 으로는 다시 밀정으로 조직되엿(○○글음)의 간사로입회함이 득책이라설명하고 입회금으로 현금이천오백원을 바더넷고 모대관과○○사령부를 방문하고온다고 속인후 평양에향하여 다라난것인바 방용환은 사취한거금을 부내창전리(倉田里)에 천팔백원을주고 집까지사고 잠복해잇는것을 발견 체포하엿다한다

留學生親睦會를 先生이 無理中止

【錦州】지난십일 릉주공립보교 강당에서 오전구시부터 류학생친목회를 의장구흥남(具興南)군의 사회하에 개회하고 순서를따라 진행하든중 모교당국으로 선생이 돌연중지(中止)의명령을 내리어 일수라장을 일우고해산하엿스나 회원일반의 불평이 자자하다

金泉橋架設實現 總工事費六萬圓

【金泉】경북김천에 문제중에잇든 김천교는 총공사비 륙만원을드려 금추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내정되엿는데 그중공사비 오천원은 김천군민의 부담으로 되엿다한다

卅餘名의 密航者 出帆現場에 被逮
水上警察署員에게

【釜山】삼십여명의 로동자가 일본내지로 밀항할양으로 약삼톤가량되는 범선을타고 밀항하라다가 부산수상서에 검거된사건—경남울산군대현면 황성리(蔚山郡大峴面皇城里)에 사는 그범선장(帆船長) 유봉수(柳鳳守)(?)는 부산부내 영선정 사는 밀항 뿌로-까 김석룡(金石龍)(?)과 꿈모하고 도항증명서가 업서서 도항하지못하고잇든 로동자 삼십여명을 비밀리에 모집하야 일인에게 원 우는 십원식밧고 지난 십이일오전두시경에 부산목도(牧島) 선류장(船溜場)에서 약삼톤인 범선에 삼십명을 억지로 승선시켜 출항하랴는지음에 산소상경찰서원에 탐지한바되여 진곡부장(津曲部長)과 형사이인 순사일인이 현장에 급행하야대격투한후 일망타진검거하야 방금 동서에 류치시기고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基靑勉勵聯合會 第二回定期會

【釜山】긔독청년면려회 경남련합회(基督靑年勉勵會慶南聯合會)에서는 제이회대회를 오는 이십일일부터 이십칠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내 초량례배당(草梁敎會堂)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방금 그준비에 분망이라하는데 강사는 사계의 권위자인 김인영(金仁泳) 유인구(兪仁?) 리유재(李裕宰)동회 조선련합회(朝鮮聯合會)총무 리대위(李大偉)씨 등이라한다 그리고 대회개최 긔간에는 매야강연회 웅변대회등을 개최하리라한다

西平壤防水의 鐵壁
普通江埋築工事實現
總工費三百萬圓

【平壤】대동강과 보통강의 합류지점부근 개수제방공사 궁민구제공사에 속하는 제방공사는 예정과가티 착착진행되며 축제용 토를굴착한 위치내항(內港)과그 홍입구인 알문(閘門)이 완성되는 동시에 현축제 최종점에서 서평양을지나 상류에 이르는축제와 하천개수문제가 이미여론화하여 평남중대사업긔성회의현안이되여잇든 최초사격장(射擊場)에서 철도선로를 따르는완곡오회하여 산천동(山川洞)에이르는 연장사「키로」의 축제공사안도잇섯스나 평양토목출장소에서 각방면으로 연구한결과 불비한점이 잇는것을 발견햇스므로 적굴동(赤窟洞)에서 청제동(靑霽洞)을지나 상흥리(上興里)에일으는 직선(直線)계획을 수립하고 진해할방침인바 이안에 의하면 축제개소가 비교적적고 약이「키로」는 굴할(堀割)공사뿐으로 축조하여 량안의산구(山丘)로 제방을 대용하여 완전히 보통강의 범람을막아 서평양을 수마에서 방어하는 유일의철벽(鐵壁)이되게할계획이다 이공사비는 삼백만원으로토목출장소에서는 근일보통강 상류의 지질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로 되엿다

孟浪한 土地挾雜輩
金浦署檢擧送局

【金浦】김포군 검단면원당리(黔丹面元堂里)조긔석(趙基錫)이란 칠십로인은 자긔선대부터 경성장모(張某)의 묘답지기로 묘답칠백평을 관리하야오든중 묘답주인인 장씨는 약삼십년전에 혹손도업시 사망하엿슴으로 그토지는 대정삼년 토지사정시에 조씨의소유로 되엿는데 그내용을 알게된 경성부중림동 일백사십구번지 장순관(張順寬)(?)이란 사람이 자긔친구인 인천부화평리(仁川府花平里) 리용현(李用鉉)(?)이와 공모하고 약일년전에 조씨를차저와서 자긔는 그전묘답주인인 장씨의 친척이라 자칭하고 엄터리업는 수작을한후 토지매매수속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야 문맹한 조씨를 속이여 도장을찍게한후 지난일월 그동리에사는 리순경(李淳慶)에게 시가 륙백원 가량되는 그토지를 삼백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십원을바더간 사실이잇섯는데 최근에와서 그사긔수단의 진상이 탄로되여 지난륙일 김포서에서 검거취조중이든바 지난십삼일 서류와 함게 인천지청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한다

崇商校同窓會

【平壤】평양 숭인상업학교 동창회(崇仁商業同窓會)에서는 오는 이십일(화요일)오후 다섯시부터 모교 강당에서 정긔총회로 모힌다는데 회원은 한분도 빼지지말고 참석하기를 바란다는바 회비는 일원으로 십팔일까지 출석할을 통지해달라한다

仁川日用品市場 不日間起工決定
雙方의 妥協으로

【仁川】북촌 일대에 위관을 정할 송현리(松峴里)일용품 시장은 그간주민 삼십칠호의반대로 긔공의 서광은 보일길이 망연하야 모처럼 북촌발전을 목저한 시설에 지장을 이르키고 잇든바 그간쌍방의 중재로 타협으로 주민측의 이전후보지까지 선정되야 그이전지로는 화평리(花平里)로정하야 첫슴며 복잡하든 한 문제로 일단락을 고하야 느저도 구월중순이나 금월하순에는 착수케되리라한다

平元線工事進捗
不遠陽德까지開通

【平壤】평원철도공사는 착착진행중에잇서 칠월말 현재로 칠십오퍼-센트이상이 진섭되여 불원간 양덕읍내(陽德邑內)에까지 개통될모양이라한다

二百數十萬圓의 大詐欺犯連累者
大邱에潛伏中被逮

【大邱】일본내지 각처로 배회하면서 이백수십만원의 채권대사긔한을 체포한사건—목하병고현(兵庫縣)형사과에서 채권대사긔사건으로 련루자를 검거하야 일변이 되도록 취조를 계속하는 동시에 일방 공범자가 그혼적을 감추엇슴으로 일본내지 또는조선만주 각처에 수배하엿슴으로 경북 경찰부에서는 이에 긴장경계중 지난십일일교모히 대구에 드러온 정창어(鄭昌漁)(?)은 십삼일오전 네시경에 남산정(南山町)자긔 처가에 잠복하야 잇는것을 탐지하고 체포하야 사건발생지인 병고현으로 호송하리라고한다

身元未詳妙齡女
鐵道에突入自殺

【釜山支局電話】십오일오후 여덟시사십분경 부산행히가리렬차가 문산역 포인트지점을 통과할지음에 나이삼십될세 되여보이는 녀자한명이 뛰여드러 무참히도 죽어버렷는데 자살한원인은 물론 신원조차 알수업다는바 시체는 림진면(臨津面)에서 인수하야 매장하기로 되엿다고한다

그女子의 一生 (184)
春園 作　夕影 畵
방랑편

학재가 저를 돌아보는것이 이것은 네겨도 하는 만이다. 하는것 가티 금봉에게는 생각혓다. 금봉은 고개를 푹 수구려버리고 말앗다. 금봉은 이 방에서 나가는것이 올흔줄을 알면서도 발이 방시닥에 부터서 떨어지지를 아니하엿다. 일생에 떠날수업는 사람을 만난것 가타서 학재의 뒤모양을 바라보기만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고십지를 아니하엿다. 더구나 인제는 언제 다시 만날찌 모르는 학재, 천리만리 감사록 멀어지는듯한 학재, 멀어질사록 더욱더욱 그리워지는 학재. 이번에 노치면 다시는 못 만날듯도한 학재라 하면 인사체면 불고하고 달겨들어 어깨에 늘어진채 그만 죽어버리고도십헛다. 인제는 학재는 그저 깨끗하기만하던 젊은 학생이아니오 원 조선이 다 아는 청년운동가다.

『누가 걱정허구?』

학재의 이 말에 숙희는 답문이 막혀서 눈만껌석거리다가

『조가 내요』

하고는 눈을 감아버린다.

『아직도 조허구 룸의의 관계를 계속할 작정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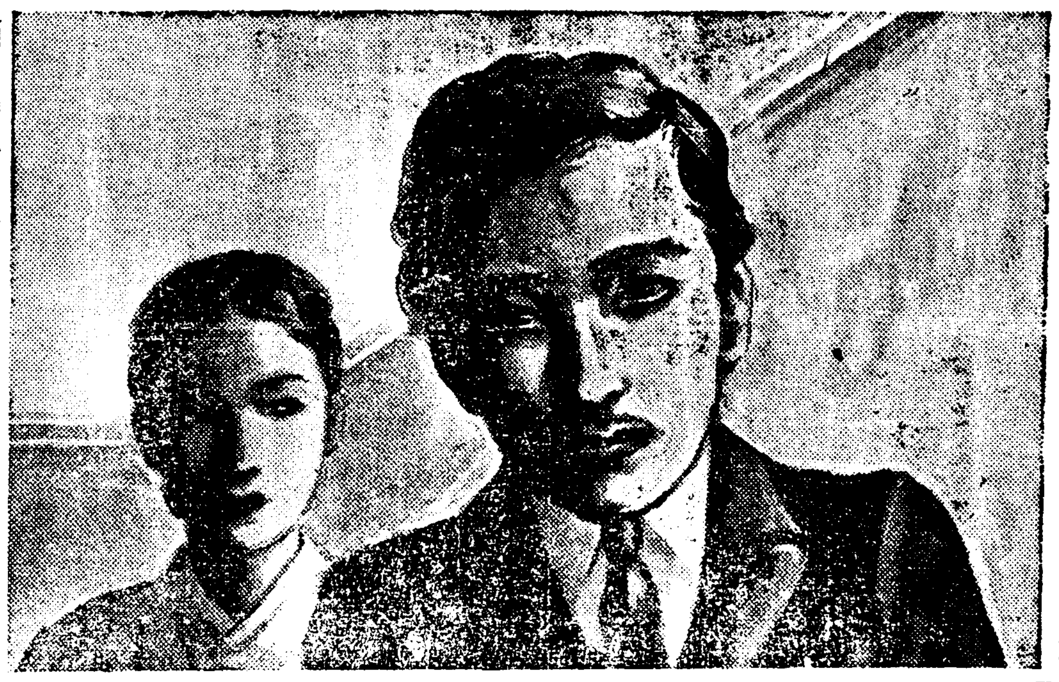
하는 학재의 어성은 날카라웟다.

숙희는 말이 업섯다.

학재는 명령하는 어조로

『그것은 안될말이냐. 내가 여긔 돈 백원을 구해가지고 왓스니 이것으로 병원비를 물고 조군헌테는 한푼도 밧지말어. 조군이 차저오더라도 만나지도 말고. 회개란 지금까지 잘못한것을 칼로 끈어버리는데서 시작되는것이냐. 인제부터는 조군허구는 일체 교제를 끈코 새사람이 될 각오를 하여라. 아직 늣지안엇서』

하고 양복 속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십원자리 열장을내



그의 몸이 부대해진것은 업스나 천근 무게가 잇슬뜻이 를지고 그 얼굴에는 세상 풍파를 만히 격근듯한 로성한빗이 잇섯다. 이런 모든것은 금봉에게는 새로 보는 흰이엇다. 김광진의 아모 알맹이 업시 번지르르하게 발라마치는것으로만 인생을 삼는 사내만 바라보던 금봉의 눈에는 학재의 주의와 신앙과 분투와 극긔와 자긔희생으로 살아가는생활이 한업시 그리웟다.

『옵바 언제 오섯서요?』

하고 숙희가 물을 때에 학재는

『아침 차에 왓서』

하고는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으로 눈을 감앗다.

『언니 잘 잇서요?』

언니라함은 영자 말이다. 영자는 남이 부끄럽다하야 한번도 숙희를 찻지아니하엿다 『게집애가 애를 배어서 그것을 떼다가 입원한 사람은 남이부끄러워서 어떠케 차자댕겨』하더라고 올납이가 와서 숙희에게 일러바첫다.

『별일업서』

하고는 학재는 화두를 돌리랴는드시

『병원비는 어찌 되엇느냐. 얼마나 밀렷서?』

『십일분은 내구 그 남아지허구 수술비허구 남앗지오』

『그럼 모두 얼마나 돼?』

『병원비는 걱정마세요』

어서 숙희의 벼개말헤 밀어넛는다.

『옵바가 웬 돈이 잇서요?』

하는 숙희 말에는 대답도 아니 하고,

『난 회시간이 잇서서 가겟다. 내 말대로 회개와 긔도의 생활을 하고 조군과는 단연히 관계를 끈허버린다는 대답을 해라』

하고 학재는 울음을 참는 사람 가티 얼굴을 씰룩씰룩하엿다. 숙희는 옵바의 그 비통한 표정을 참아 볼수가 업섯다. 그 비통한 표정이 말로 번역하면 멧 천만 마듸지 모를것 가탓다.

『옵바 용서하서요』

하고 숙희는 다시 울먹울먹하엿다.

『그런 말이 다 씰데 잇네? 네가 앞으로 똑바른 길을 힘잇게 걸어나가기만 하면야 세상이 너를 용서만 해? 숭배하게될 안 되랴. 진창에 빠진 사람이 할 첫일을 진창에서 나와서 더러운 옷을 버서버리고 몸을 씻는것이아니냐. 그러니까 어서 진창에서 나오란말이다』

『옵바, 나는 살아날것 갓지도 안코 또 살아나고 십지안허요. 내게는 도모지 희망이 업서요 옵바 이 동생을 이저버려주서요』

하고 숙희는 늣겨 울엇다.

躍進하는 코리아레코-드

드리는 말슴

今春四月東京에 位置를두고 裵基式氏를代表者로 組織된『코리아蓄音器商會』朝鮮文店을 不肖等이經營하게되자 江湖有志諸彦의 敎篤하신 聲援과 支持를 입게되엿든것을 感謝하오며 朝鮮人自營의 레코-드製作이란 이것이 偉大하엿든만큼 海內海外를 勿論하고 돗잇든 이의 關心이 컷든것에 反하야 不幸하게도 그들 組織의基礎가 微弱하엿고 力量이 不足하야 社會의 期待를 圓滿히 채우지 못하고 商品製作을 中止하지아니치 못할 悲境에 빠지게되여 第一回作品을 配給한채 爾來數個月間 가슴 압흔 沈默을 아니지킬수업게되엿습니다 이에 伴하야 朝鮮文店이 貧한 物質的損害는 姑捨하고라도 精神的 苦痛을 아니격지 못하얏슴니다 對內對外를 勿論하고 熱烈하신 支援을 베프러주시든 厚意에 報답할 못그러운 말슴을 무엇이라고 闡明할것인가를 생각할때에 未安하다못하야 熱淚를 삼킨적이 한두번이 아니엿습니다 이 事業이 항망정 코리아 文化企業의 一部門으로서 아프로 우리들이 開拓할 分野가 廣漠한지라 利害打算을 떠나서 보드라도 自負하고나섯든 重責을 萬分의 一도 實踐치못한다는것이 社會에 對하야 不肖等은 赤面의 恥를아니 感할수 업섯습니다 이에 一方財政的 基礎를 確立하는 同時에 同志를 糾合하는 最後의 勇氣를 뽑내어 契約上 前經營者 裵基式氏로부터 商權을 移接하야 堂堂한 會社로 登錄하게되엿습니다 이리하야 內部의 組織을 鞏固히 하는 同時에 全員이 一致協力하야 社會의 期待에 어그러짐이 업도록 奮鬪努力할것을 盟誓하옵니다 虛勢誇張을 避하고 以小成大의 自重을 標語로 唱導奉仕의 적지안흔 責任을 實踐하여가려하오니 이것이 蠻勇에 날뛰는 理想에만 그치지안코 모름직이 有終의 美를 結하도록 懇願하여마지안나이다 江湖有志諸彦은 꾸지람과 종아리치주시는 사랑을 앗기지마시옵소서 革新의 初에 臨하야 삼가 紙上으로 微意를 謹告하는 바입니다

昭和十年八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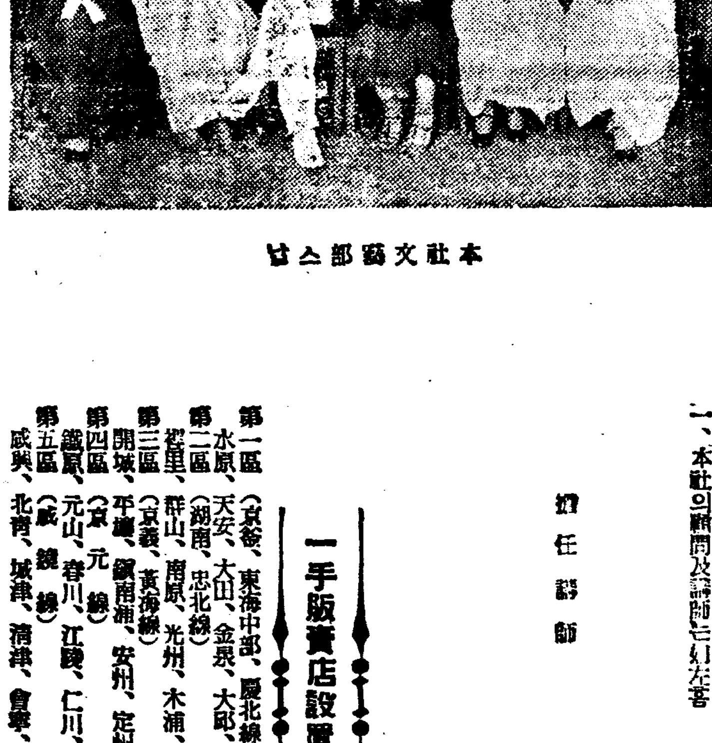
코리아蓄音器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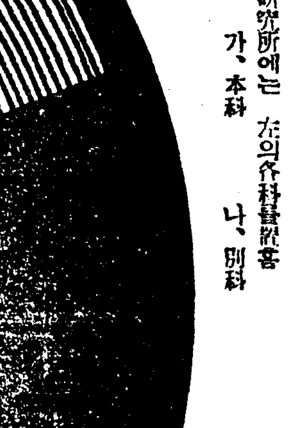
代表理事 金武森
專務理事 總務課長 宋麟淳
專務理事 東京製作所長 金泰燮
企劃部長 全 馨
文藝部長 朴榮根

社屋全景

顧問 金文輔

代表理事 金武森


本社文藝部스탭


專務理事 宋麟淳 總務課長

專務理事 金泰燮 東京製作所長

코리아音樂研究所趣旨書

코리아레코-드가 出現하자 滿天下有志諸彦의 熱烈하신 愛護 聲援하에 自負하엿든 使命의 過程을 着着進行하는中에 잇슴은 오로지 趣味로나 理想이 同一한同志들의 致篤하신 指導와 및 熱烈하신 鞭撻을 베푸러주신 德澤인가하오며 고개를 깁히 숙여 感謝의 뜻을 表하는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코리아 文化企業中에도 가장 文化事業으로서의 色彩를 多分히 包含한것으로 文化事業的 見地에서 우리들이 기어진 責任이 얼마나 重大한것이 나를 생각하오면 스스로소스라치는 늣김을 禁할길이 업습니다

現下朝鮮音樂界를 觀察할때에 한개만이라도 完全한 研究機關이 업고 그것이 업슴으로써 音樂的素質은 豊富히 가지고도 自身의 素質을 完全히 發揮할만한 찬스를 주지못하는것이 實로 遺憾스러운 現象이라하겟습니다 이에 所感한바 잇서서 今般弊社의 擴張에 伴하야 無名音樂藝術家들을 爲하여서 時宜의 機會를 開放하기로 되엿스니 이것은 本社가 社會的 良心에 立脚하야 레코-드 革新의 文化企業的 妥當性을 十二分發揮하여보려고 意圖하는 最大의 抱負인 同時에 弊社 文藝部員들이 朝鮮樂壇에 밧치는 良心의 조그만 部인것입니다 多幸히 우리들의、이조고만 企圖가 四海同志의 共鳴을 어더 有終의 美를 맷게된다면 無上의 幸이라하겟습니다 이에 內規의 一端을 發表하오니 有意하시는분은 直接 書面으로 問議하시면 詳細한것을 親切히 指示하여드리겟습니다

昭和十年八月 日

京城府堅志洞六〇番 코리아蓄音器會社內
코리아音樂研究所 白

祝 新築記念

內規

一、本研究所에는 左의各科를置홈 가、本科 나、別科
一、各科內에 左의各部를置홈
(本科) 가、聲樂科 나、提琴科 다、피아노科 라、作曲及樂理科
(別科) 가、朝鮮音樂科 나、兒童音樂科 다、키타科
一、研究所員을志望하시는분은 入會金敎科書代貳圓과 初回月謝金參圓을 志願書에添付하야 提出할事
一、研究期間은入會日로부터滿六個月로하고每月月謝金參圓을納付홈
一、研究期間滿了後特出한才質을認定할時 本社藝術家로特別히優遇採用하는特典이有홈
一、本社의顧問及講師는如左홈

研究所長 朴榮根
顧問 金武森
〃 金永煥
〃 金文輔

擔任講師 李興烈 李永世 李升學 朴景熺 尹梁淳 柳基興 李英根
(以上無順)

一手販賣店設置豫定地

第一區 (京釜、東海中部、慶北線) 水原、天安、大田、金泉、大邱、釜山、浦項、安東
第二區 (湖南、忠北線) 裡里、群山、南原、光州、木浦、淸州、忠州
第三區 (京義、黃海線) 開城、平壤、鎭南浦、安州、定州、新義州、江界、海州、沙里院
第四區 (京元線) 鐵原、元山、春川、江陵、仁川
第五區 (咸鏡線) 咸興、北靑、城津、淸津、會寧、羅津、圖們

朝鮮製糸業令決定 ◇……全文十個條로

【東京電話聯合】朝鮮總督府는 朝鮮製糸業의 現狀에 鑑하야 이것을 統制上 必要한 限度에 依하야서 斯業의 健全한 發達을 期할 必要를 認하고 制定하기로된 朝鮮製糸業令(制令)은 十五日의 閣議에서 決定되엇는데 施行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할터이고 그全文은 如左하다

▲第一條 本令에서 朝鮮製糸業者라 稱함은 朝鮮總督이 定하는 者를 除하外 生糸의製造를 業으로하는者 又는 生糸의製造를 行하는 産業組合으로 朝鮮總督이 定하는者를 除하外 本令의 適用에對하야서는 이를 製糸業者로 見做함

▲第二條 製糸業者가 되려는 者는 朝鮮總督의 免許를 受할것 免許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함

▲第三條 朝鮮總督은 製糸業者에 對하야 製糸業의 統制上 必要한 事項을 命할을得함

▲第四條 製糸業者는 免許를 受한 日부터 一個年以內에 事業을 開始치안는時는 朝鮮總督은 그 免許를 取消할을得함 製糸業者는 引續하야 一年以上 그事業의 全部 又는 一部를 하지안는 時는 朝鮮總督은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又는 그 事業을 制限할을得함

▲第五條 製糸業者의 所爲로 本令에 基하야 發하는 命令 또는 法文에 違反하거나 又는 公益을 害하거나 또는 害할 念慮가 잇다고 認할 時는 朝鮮總督은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그 事業을 停止할을得함

▲第六條 朝鮮總督 又는 道知事는 取締上 必要라고 認하는 時는 製糸業者에 對하야 事業에 關한 報告를 식히거나 又는 當該官吏로하야금 事務所、營業所、製糸場、倉庫 其他의 場所에 臨檢하거나 또는 帳簿物件을 檢査식힐을 得함

前項의 境遇에 잇서서는 當該官吏는 그 自己를 證明할 證票를 携帶할것

▲第七條 第二條第一項의 規定에 違反한 時는 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八條 左의 各項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五十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一、第三條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者

二、第四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制限 又는 第五條의 規定에 依한 停止의 處分에 違反한者

三、正當한 理由업시 第六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를 하지안커나 또는 虛僞의 報告를 하거나 又는 當該官吏의 臨檢檢査를 拒絶하거나 또는 그訊問에 對하야 虛僞의 陳述을한者

▲第九條 製糸業者는 그 代理人、戶主、家族、同居人、雇人 其他의 從業者가 本令 또는 本令에 基하야 發하는 命令에 違反한 時는 自己가 指揮한 것이 안이라는 理由로 其處罰을 免할을 不得함

▲第十條 本令에 依하야 適用할 罰則은 製糸業者가 法人인 時는 理事、取締役、그他의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役員,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時는 그 法定代理人에 이를 適用함

▲附則＝本法令施行의 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함 本令施行의 際 現在 製糸業者인 者는 朝鮮總督이 定하는바에 依하야 本令에 依하야 免許를 受한것으로 看做함

朝鮮米平年作以上 一割增收可能豫想

日本內地米凶作說不無이나 此亦平年作의 觀測

今年米作은 일즉이 湖南地方의 旱災와 京畿、黃海、平北、咸南道의 部分的水災로 因하야 그前途가 憂慮되든바 總督府農林局 美代技師는 今年朝鮮米作의 總況에 對하야 다음과가티 말한다

×

今年은 南朝鮮地方에 部分的으로 旱魃이 甚하얏스나 그뒤 氣候의 順調로因하야 救出된面積이 적지안코 其他의 京畿、黃海等地에 部分的으로 水災가잇섯스나 此等은 總作付面積에 比하면 極少部分이며 그밧게의 生育은 자못良好하야 現在狀態로보면 平年作以上은 틀림이 업슬것이다 그리고 日本內地米作도 東北地方에 冷害가 좀 잇섯스나 其後의 天候가 良好하야 全般的으로 平年作以上으로 될豫想이다

朝鮮米作況 臨時的調査 八月廿五日現在로서

今年度 稻의作況調査는 年例에 依하면 九月十日現在의 報告로서 그第一回發表케될것이나 今年은 昨年의 例에 依하야 今 八月廿五日 現在로써 臨時調査를 하기를 決定하고 十五日 農林局으로부터 各道에 對하야 報告樣式을 붓처서 通牒을 發하엿는데 그作況決定標準은 다음과갓다

▲良＝平年作으로부터 一割以上의 增收

▲稍良＝三分以上 一割以內의 增收

▲普通＝平年作을 中心으로하고 三分減收

倫敦銀塊續落 ◇……廿九片臺崩壞

【倫敦十五日發聯合】倫敦銀塊市場은 十四日大幅崩落이엇든것이 十五日도 印度側、投機側의 賣物을 가지고 市勢는 다시 떨어지고 米國側의 繼續買物도 問題가안되고 現物은 二十九片으로 十六分三片이 續落하고 先物은 畢竟二十九片臺가 깨어저 二十八片十六分十五로 모두 今年三月以來의 新低價로 崩落하엿는데 前途의 氣配는 悲觀說을 되고잇다

水曜會 銀建價 大幅位引下

【電通東京電話】海外銀市勢의 續落으로 日本內地水曜會에서는 前日大幅引下를 한뒤에잇대여 다시 十六日의 銀建價를 六十七錢三厘 내려서 一키로六十九圓四錢四厘로 改訂하엿다

市中銀塊漸落 ◇……二十四錢買市勢

倫敦銀塊와 紐育銀塊의 暴落을 反映하야 漸落의 一途인 京城市中銀塊市勢는 倫敦銀塊二十九片의 新低價를보고 十六日 다시五厘가 떠어저 二十四錢買의 二十六錢五厘氣로되엇다

近年世界金移動 通貨安定이 緊要

近年에 大量의 金이 移動된 것은 거의 全部가 通貨에 對한不安으로 생긴것이다 米國에서 一九三三年으로부터 一九三四年까지 最初에는 金이 流出되엿다가 그뒤 다시 流入된 事情을 보자 一九三三年中에 米國은 一億五千萬弗의 金을 일허버렷는바 이것은 무슨까닭이엇든가 하면 米國政府가 金一온스의 弗價値를 將來 올릴것이다 다시 말하면 組織的으로 弗의 金價値 即弗의 金含分量을 줄일意思가 잇슴을 發表한때문이다 이 發表가 되자 딸어서 곳 弗의 所持者는 그 所有한 弗을 比較的 安定하다고 생각하는 通貨로 박구엇다 이와가티 當時의 貿易은 米國에 有利하엿슴을 不拘하고 金은 流出하엿다

×

一九三四年에는 反對로 米國에 十一億弗以上의 金이 流入되엇는바 이流入을 米國의 貿易收支로 생긴것이라고 보는사람도 잇다 그러나 米國의 貿易收支가 이 金流入에 對하야 全然 關係가 업섯든것은 아니나 이것은 米國에 가장 大量의 金이 드러온것이 어느때이엇든가 보면 充分히 說明이 된다 一九三四年中 米國에 流入한 金은 總額十一億弗에 達하는데 이中 七億弗은 二月과 三月中에 流入한 것이다 이 膨大한 金流入의 原因은 倫敦과 巴里의 弗市勢가 米國政府에서 一九三四年一月末 決定한 金一온스의價格보다 노프게 된곳에 잇다 合衆國政府가 決定한 金의價格과 倫敦 或은 巴里의 弗市勢間에 差가 생겻스므로 取引業者는 巴里、或은 倫敦에서 金을 사고 이것을 紐育에서 새로히 決定된 價格으로 팔며 다시 이와가티 하야 어든 弗을 倫敦 或은 巴里에서 노픈 市勢로 팔어서 大利를 보기 機會가 되엇다 그래서 이 取引은 그 取引自身이 行하여서 價格의 差가 消滅하는 同時에 끄첫다 그뒤 佛國 또는 英國으로부터 紐育에 向하야 輸出된 金은 매우 僅少하엿다

×

이와가티 一九三三年으로부터 一九三四年까지 顯著히 金이 移動된것은 大部分 米國政府의 愼重한 通貨操作으로 因한것이며 米國이 貿易上 有利한 地位에 잇섯든때문이아니라 貿易上의 原因으로는 一九三五年初以來 米國의 貿易均衡은 漸次惡化함을 不拘하고 米國에 流入한金이 數個月漸次增大하고잇슴은 不可解의일이 아닌가 近年에 달흔流의 移動 即倫敦에서 巴里、그뒤에는 다시 巴里에서 倫敦으로의 移動等은 모두 가튼方法으로 說明되엇다 一九三三年 倫敦에서 世界經濟會議開催中에 金블럭이 形成된結果 佛國銀行、白耳義國立銀行、瑞西國立銀行과 和蘭國立銀行은 各各 二週間을 顯著히 强化키로되엇다 反對로 最近數週間은 佛國의 法貨切下念慮로 佛國銀行은 約百億法의 金을 일허버렷다

×

以上과가튼 金移動은 貿易收支와는 無關係로 모두 諸國政府의通貨政策에對한 一般의 不安으로 생긴것이다 即 金의 浮動은 最近 相當히 論議되는 浮動資本 或은 逃避資本으로 因하는 것도 안이다 浮動資本은 通貨不安定의 原因이 아니라 結果이다 多數의 個人과 會社가 資本을 投資치안코 둘수만 잇스면 流動키 쉬운 거두라는것은 通貨不安定으로 생긴것이나 恐慌의 境遇에는 金하야 現金의 銀行에 預金하야 두는것은 損害를 免하나 一面으로 强力의 銀行에 預金하여 두는것은 有價證券 或은 不動産을 低價로 放賣할수가 업서짐으로 사람들은 資金을 마히 預金의 形式으로 가지고잇게되나 이러케되면 利息은 資本家를 誘導할힘이 업게되고 資本家의 第一目的은 資金의 保證 即安全하다 그럼으로 아 狀態는 金融市場의 頻態的狀態 即短期資金은 너무 남어서 利率이 低下함을 不拘하고 長期資金을 借入하면 매우 高利率이니 이러한 長短金利의不均衡은 그自體 經濟的 不健全의 一特徵이다 (終)

加藤朝銀總裁 東京常駐키로

朝銀에서는 十五日의 總會에서 色部理事의 重任、橫瀨檢査課長의 理事가 當選되엇슴으로 右理事에 對한 大藏省의 認可를 기다려 第二次異動을 發表할터인데 總裁以下各理事의 業務分擔을 決定하엿다 即加藤總裁는主로 東京에서 統轄、色部理事도 東京駐在로 轉하고 爲替業務及大藏省關係를 松田理事는 滿洲關係事務를 各各擔當하고 橫瀨理事는 京城駐在로 朝鮮關係는 主로 松原副總裁가 統轄케될터이라고

▲朝銀第二次異動＝朝銀에서는 十八日頃 第二次行員의 大異動이 잇기로된바 이에作하야 支店長의 經理가 잇기로되엇고 本店秘書課長은 第二次異動으로 다음과가티 更迭키로되엇다고

▲命平壤支店長(本店秘書課長) 山上 逸

▲命秘書課長(東京支店長) 大塚源次郎

鎭取更生 當局方針決定

鎭南浦米取는 業績衰微하고 會員數도 二三名에 不過하야 取引所의 認可取消까지 念慮되든바 今夏以來 當地로부터의 更正工作도잇고 過般産組理事會列席을機로 堂本商工課長이 現地視察 結果 鎭取를更生케하기로 總督府方針을 正式으로決定하고 目下申請中의 新取引員認可도 不日中잇슬터이라고하는데 이에對하야 堂本商工課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平南을 視察하야 道當局의意向과 鎭南浦의 更生意見을듯고 또 西朝鮮三道의 米穀集散地에 取引所機關은 不可缺할것으로 鎭取의機能發揮를 總督府로서도 希望한다 要컨대 鎭取不振은 從來의 關係者의 熱意不足으로 起因된것이며 現在의 熱意로는 充分히 取引所의 機能發揮가 可能할것이다

自由市場의 繭買付自重 製糸協會에서 協議

朝鮮製絲協會에서는 十三日부터 十五日까지 三日間 在京城役員의 會合을하야 岩村製絲의 要求인 繭의 自由市場買付問題로 協議하엿는데 原料繭은 各工場이 모두 不足을 늣기고 잇스므로 此際 一社만 自由市場에 買付를 許함은 統制上 조치 못하다고하야 各社에 開放케되면 自由競爭으로 價格引上의 結果가 될것으로 右 岩村製絲의 提議는 否決하고 將來 原料關係로 買付를 要할 境遇에는 各工場과 同一步調를 取키로 協議하엿다

日滿爲替前途 爲替銀行觀測

【東京電話聯合】最近의 日滿爲替低落에 關하야爲替銀行側에서는 如左히觀測하고잇다 最近中央銀行은 上海向爲替의 賣却을 停止함에依하야 銀과의 關係를斷絶하고 管理通貨인國幣本來의 姿態로復歸한事實과 大藏省의 對滿投資抑制策에 加하야 滿洲關係株式公債 市價의 不振이 原因이되어 對滿資金流出은 一時와가튼 氣勢가 업기때문에 滿洲國의 國際收支는 漸次惡化의兆를 示하고잇슴으로 國幣價 ……

夏秋繭高價豫想 生糸市勢昂騰으로

▲……田中農林局技師談

十五日의 橫濱生絲市勢는 七百圓臺를 突破하야 昭和八年以來의 新高價를 示한바 去春에比하야 約百圓가량의 昂騰을 나타냇다 이에對하야 總督府農林局田中技師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요새 生絲市勢로 지난春繭期보다 百圓가량이나 騰貴되엇슴으로 夏秋繭價는 勿論 春繭보다 高價일것이 事實이나 그러고 夏秋繭의製絲量은 春繭에 比하야 얼마큼 낫흐며 絲量도좀적음으로 生絲價가騰貴된比例로 繭價가높하지리라고는볼수는업스나 어떠튼지 春繭보다는高價를示할것이다云云

十六日은 反落市勢 買方追擊相當

漸高步調를 取하고잇든 生絲市勢는 十五日 俄然 爆騰하야 橫濱前場은 當限 七百五十六圓에 保合하고 後場寄는 當限 七百五十八圓 先限七百十圓의 高價를 示現하엿다가 十六日 前場에는 當限七百五十圓 先限六百九十九圓으로 反落하엿스나 生絲市勢의 躍進은 主로 紐育의 株高와 當限에 對한 準備不足의것으로 最後的의 買充을한 때문인바 一面 賣方은 證據金을 增徵당하고 買方은 乘勢하야 買進하고잇슴으로 理論을 超越하야 急昂騰하지 안흘가고보는 側도 잇스나 이미 絶頂에 接近하얏다는 觀測도잇다

今日의財界 (十六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正米 (丸仁三等)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收良) 一石	[illegible]	[illegible]
一斤 假在米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朝取 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商品 (先限氣配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銀價 一匁買: 金 [illegible] 銀 [illegible]

全朝鮮內 會社新設 七月中에相當

【京城商議調査】七月中의 朝鮮內會社異動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金
新設	七三	一七、八五一
增資	一三	四八二
解散	二八	五七一
拂込	一四	七八九
減資	四	六七九

同月末現在의 會社數及資本金은 다음과갓다

	社	資本金	拂込
株式	一、三九五	[illegible]	[illegible]
株式合資	四	一、〇五五	[illegible]
合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即前月에 比하야 四五社 前年同月에 比하야 五〇九社의 增加이다

買根據尙薄弱

重工業株를 中心으로한 諸株高는 陸軍不祥事件에 對한 鈍感을 물하고 漸騰의 强調가 繼續되야 東新의 追隨高도 相當한터이며 딸어서 今後의 惡化材料만 업스면 그것을 背景으로한 秋高의 期待를 가질수잇다는것의 强氣觀이다 그런데 이雜株高의 動機는 過實한 重工業株의 回復을 들을수잇스나 根本的으로는 低金利의 刺戟으로 反動訂正市勢가 나타난것이다 그러므로 이事情만 가지고는 强氣가 秋高期待를 가지는것도 一理가 잇다고 볼수잇다 그러나 明年度 豫算編成이 어떠케 될는지 모르고 이에對한 大藏省의 態度를 갓게 될때는 적어도 九月에 안들어스고는 不可能할이며 또는 再次의 財政인플레人氣를 갓게되는 度의 財界態度를 할것이며 大市勢의 出現을 말할수가 업다 그러고 低金利의 前途에 잇서도 아즉悲觀할것은 아니나 現在以上의 低金利는 거의絶望으로보는터이다 이와가튼 四圍情勢에잇서 다만 値頃觀 物色買가 잇다고하야 이로써 高價의大市勢를 期待하는 너무根據가 薄弱하고 딸어서 秋高期待를 가짐에足한 環境의展開로 보기어려움으로 戻賣가 不絶케되다

經濟界消息

米日爲替反落

【十五日發聯合】十五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하면 一仙低 買二十九弗四十三仙으로 二仙低 買二十九弗四十仙으로 一仙低

○全朝鮮商議議員改選期＝全朝鮮商議議員改選은 大概各要地가 모두 今秋에 實施케될것인데 그 選擧期日은 다음과갓다 ▲京城十一月一日▲仁川九月一日▲群山九月一日▲新義州九月十一日▲木浦九月一日 그리고 今年度終了는 南浦三月, 釜山七月이엇다고

○安田銀行異動【聯通東京電話】仁川支店은 十五日로 廢止하엿슴을 伴하야 다음과가튼 異動이잇섯다고

▲命平壤支店長(仁川支店長) 角田 吉藏

(平壤支店長) 高木 好雄

▲第二業務課勤務

商況 (十六日)

株式 警戒氣로 伸惱

前場反落 商品高로 昨日에 昂騰하엿든바 今朝에 米棉五十一錢高이나 生絲軟으로 大新五十四圓十錢 東新八十一錢低인 百三十八圓 日產一圓四十錢低 七十四圓六十錢의 各寄付가 잇슨뒤 保落의 軟調를 示하야 大新八十四圓 東新百三十七圓六十錢 日產七十四圓六十錢의 大引을 示하엿다

後場强硬 東新百三十七圓六十錢 日產七十四圓七十錢으로 保勢의 寄付가 잇슨뒤 反强의 勢를 示하엿다

戻賣와押目買 對峙되는商狀

生絲高를 材料로 雜株高가 顯著하야 東新日産高도 緻密하엿던바 今朝에 生絲稍反軟을 伴하야 戻賣에 눌리어 反落을 出現하엿다 이처럼 反動訂正高의 ……

市場六感

株 生絲高와 雜株買에 끌이여 過低의 反動高가 繼續되라는 市勢로 보아서는 秋高期待의 人氣가 擡頭하면서도 相當◀그러타고해서 買進키는 依然히 어려운處地에잇음으로 다만세인맛이 잇는 程度에 끄치는强調 ▲오늘에잇서 四圍事情을 살피면 一向 安心買케할根據가 업슬뿐아니라 豫算編成이 아즉도 어떠케될는지 모르고 ▲더구나 陸軍不祥事로 因한不安의念이 잇는때인마큼 이때에 漠然한買進은 危險한생각을 버릴수업서 ▲或은 昨日에도 말한바가티 高價는 戻賣의 好機를 맨들어주는 結果가되지 안흘가 하는 念慮가 不無……

米 ▲昨前場에는 鮮取引店으로부터 中限一萬石야로」소리를 위치더니 今前場에는 金太取引店으로부터 또 中限一萬石야로」소리를질은다 萬石賣의 流行時代?▲實買도 아니되는 萬石賣의소리를 위칠진대 한층더 虛勢를내어 十萬石야로」何如?▲連日 萬石야로」소리가 場面을 뒤집는듯하나 市勢의 그自體는 依然頑强하야 今朝當限은 三十一圓臺를 突破하고 中先兩限도 二十餘丁이나 反撥▲그런데 當限戰이 아달로 不遠한時日에 어떠한 結果를 招來할 모양인구 此가 注目處인걸▲表面의 取組는 一萬七千五百石이 아니되나 그러나 其實賣面의 石數는 三四萬石이나된다고 賣方의 一大關心處▲一部弱派로부터 約五千石의 實米를 整備하엿다고는하나 이것만으로는 不可抗力▲一時稻作의 良好說로 軟派에陷하엿든 先限도 昨今에 入하야는 中限의 騰勢를 作하야 再批作卓한步調를 띄고잇다 先限買도 또한希望이 업지안는가?

期米 繼續하는 强調

前場續騰

昨後場 阪地三十圓三十錢止와 共히 二十八圓三十二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三十八錢인 八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四十六錢까지 小反하엿다가 反히四十一錢으로 四十二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五十四錢까지 跳返하엿다가 反히四十六錢으로 結局五十三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軟化

前場止다三錢低인 廿八日五十錢에 始한뒤 五十二錢까지 잇섯다가 稍軟化하야 四十五錢에 止하엿다

問題의當限戰 今後渡米難問

昨今의 當地當限은 比較鈍感을 뭇하야 꾸준하게 堅實한 步調를 帶할 뿐으로 中先과 如히 活卓의 觀을 뭇하지안흐나 그러나 丸仁三等 玄米가 三十圓七十錢이란 漸騰의 形勢를 帶함으로 實米化하는 當限의 容易히 低落치못할것을 豫期할수잇다 그뿐만아니라 當限戰의 第一問題되는것은 今後 渡米調達의 如何인데 昨今 表面의 取組로 보면 一萬七千五百石에 不過하나 그러나 其實 懷中의 石數를 合하면 적어도 四、五萬石은 되리라 한다 그러므로 買方이 最後一刻까지 姿勢를 當치안코 受米를斷行하는때는 賣方의 嫌氣的態物이 업지안흘 모양이다 弱氣側一部에서 五千石假 利喰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伸惱

【大阪電話】低溫不去이며 人氣硬化인데 天候恢復과 氣弱을 豫想하야 買氣가 繼續되지못하고 意外로 伸惱의 風情이엿는데

▲賣方＝朝鮮側、東京側、地場

▲買方＝山中側、河內側、地場 弱氣側

大阪株式短期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產	三三	五八	五四、四六〇
東新	三八	五三	七七、一四〇
大新	三〇	六三	八〇、一五〇

朝取實物取引

◇賣買高二百枚

▲日本麥酒 [illegible] ▲川崎코크쓰 [illegible] ▲에파바이 [illegible] ▲大阪商船 [illegible] ▲大倉세멘트 [illegible] ▲土佐세멘트 [illegible] ▲昭和鋼 [illegible] ▲新興人絹 [illegible]

先限買氣集中 擴稍의關係?

中先의鞘는 新甫發會當時에는 百三十九丁으로 二百十五丁까지 擴大하엿다 그後의 經過를 觀察한바에 依하면 先限은 新米建으로 一時稻作의 豊收說이 擴頒함에 딸아 限의 實物이 擴出하야 中先의鞘가 不知中擴大되엇스나 昨今에 入하야는 日本內地의 天候不良으로 反히 凶作說이 濃厚함에 딸아 當中의 買方은 更히 先限을 買占하게되는 關係로 先限買氣가 頑强하게 되는 로움이라 先限의 步調가 頑强하여진다 要하면 仕手觀으로도 以上의 擴鞘는 期待키도 難하거니와 萬一天候가 繼續不良하는 때는 當中보다도 先限이 먼저 騰貴되기가 十常八九일것으로 此點을 念慮하는 買氣가 稍漸發生하는 모양이다 勿論今日의 稻作狀況으로 보아서 朝鮮及 日本內地를 不問하고 平年作이 될락말락한 狀態인즉 樂觀說의 方針을 取하여 온 先限도 容易히 低落되지 못할것을 豫期할수잇다

……鬪의 實米事業을 保持하엿다고는 하나 此點으로는 買方의 勢力을 保持할수 업슬것이오 此를 傳하야 一時努力을 내어 買方을 征服하려 하는 態度이나 結局 當限은 一觸卽發性을 含有하고잇다

各地正米

▲賣方＝山中側、河內側、地場 强氣側

京城堅高 淸算取引近高에 刺戟되야 氣配二十錢方騰高이엇는데 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仁川硬進 期米手當買物이 依然 旺盛하야 氣配二十錢方騰高이엇는데 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五十錢

釜山硬强 市場買物二千叺 古米에 閑散이나 定期强硬으로 氣配二十錢高인데 ⑤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 [illegible] 一等白米十二圓七十錢

大邱底堅 定期高의 刺戟으로 氣配十錢高의 잇스나 依然賣方沈默으로 ⑤三等二十九圓八十錢 四等二十九圓五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群山少弱 現着三輛 期近弱으로 淸算은 餘勢인데 實行一服見과 産地買價가 적어市況은 休業狀態이엇고 相場은 五錢低이엇는데 ◎三等三十圓四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無付 日本內地 綿絲狀態로 實行이 不振하야 定期高鈍感으로 依然 不變이엇는데 ◎多勢三等三十一圓五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雄町三等三十圓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鎭南保勢 依然 實物이 적고 强含으로 實買가 업고 市勢는 不變의 閑散으로 氣尾三等三十圓三十錢 四等三十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三十錢

金融 十六日

◆海外經濟◆ 十五日

倫敦銀塊 現物	[illegible]
同 先物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米棉	[illegible]
英貨	[illegible]

◆朝鮮銀行券◆ 十五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十五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交換高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東京金利◆

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日步	[illegible]
物件	[illegible]
手形	[illegible]

◆對外爲替◆

對上海	[illegible]
對米	[illegible]
對英	[illegible]

◆金買入價◆

日本銀行	[illegible]
朝鮮銀行	[illegible]
京城府	[illegible]
京城本町	[illegible]

米穀 十六日

◆京城正米◆

	上	中	下
玄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三等米	[illegible]
四等米	[illegible]
在來正租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朝鮮米	[illegible]
日本米	[illegible]

◆京城雜穀◆

大豆	[illegible]
小豆	[illegible]
粟	[illegible]
大麥	[illegible]
小麥	[illegible]

◆仁川大豆◆

長湍大豆	[illegible]
黃海大豆	[illegible]
金堤大豆	[illegible]

商品 十六日

◆京城綿糸布市勢◆

綿糸	[illegible]
綿布	[illegible]

◆京城綿布◆

本綿	[illegible]
生金巾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麥粉	[illegible]

◆지카고期麥◆ 十五日

期麥	[illegible]

◆綿油冲價◆

綿油	[illegible]

◆鰊搾粕冲價◆

鰊搾粕	[illegible]

◆滿洲商況◆

大豆	[illegible]
豆粕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大豆	[illegible]
豆粕	[illegible]
豆油	[illegible]

米 十六日

◆朝取期米◆

節	當限	中限	先限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當限	中限	先限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當限	中限	先限
神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節	當限	中限	先限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節	當限	中限	先限
前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 玄米	[illegible]
日本內地 白米	[illegible]
朝鮮 玄米	[illegible]
朝鮮 白米	[illegible]
臺灣	[illegible]

株式 十六日

◆朝取短期◆

	前引	後引	高値	低値
朝取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實物◆

朝取	[illegible]

◆鑑定代用日步◆

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前引	後引
東新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

東新	[illegible]

◆大阪長期◆

	前引	後引
日產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前引	後引	高値	低値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品 十六日

◆大阪綿糸◆

	前引	後引
八月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各地人絹◆

東京 先當	[illegible]
大阪 先當	[illegible]
福井 先當	[illegible]

◆橫濱生糸◆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大阪砂糖◆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海外砂糖◆

現物	[illegible]
倫敦 八、九月	[illegible]
紐育 八、九月	[illegible]